

20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기획사업

20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평가 질적연구

(방학주말프로그램 / 활동가 파견사업)

2015. 2

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본 자료집은 “20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提 出 文

韓國障礙人福祉館協會 貴下

본 보고서를 「2014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사업 중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사업 성과평가 질적연구
(방학주말 프로그램/ 활동가 파견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2월

- 책임연구원 김종인(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서원선(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공동연구원 정도선(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연구원)
- 공동연구원 주은미(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연구원)



요약문

I. 서론 _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6
3.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7

II. 문헌고찰 _ 9

1.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의 이해	11
2. 장애와 문화예술	12
3. 복지기관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현황	20
4. 선행연구 분석	26

III. 심층면접 및 FGI 분석결과 _ 31

1. 연구 설계	33
2. 연구자 및 연구참여자	34
3. 자료의 수집	37
4. 면접자료 분석결과	38
5. 질적 분석결과의 요약	71

IV. 결론 및 제언 _ 73

V. 참고문헌 _ 83

[표 목차]

<표2-1> 복지기관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체계도	20
<표2-2> 방학주말 프로그램 개요	22
<표2-3> 방학주말 프로그램 사업 실적	23
<표2-4> 활동가 파견사업 개요	24
<표2-5> 활동가 파견사업 운영 실적	25
<표3-1> 주요면접 질문내용	34
<표3-2> 방학주말 프로그램 참여자	35
<표3-3> 방학주말 프로그램 담당자	36
<표3-4> 방학주말 프로그램 예술강사 인터뷰 응답자	36
<표3-5> 활동가파견사업 활동가 인터뷰 응답자	37

[그림목차]

[그림1-1] 연구설계	7
[그림3-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사업 효과성 통합모형	71

2014년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평가 질적연구
(방학주말 프로그램/활동가 파견사업)

요 약 문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문화예술은 넓은 의미에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사회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양식인 ‘문화’에 포함되는 활동으로서 ‘예술활동: 문학예술, 영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음악예술’이 있는 문화를 칭함.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은 창작 지원 정책에서 시작되었지만 국민총생산 2,000달러를 넘어서는 1983년 이후에는 전 국민의 문화향수 진작 중심정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문화예술정책 또한 ‘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중심’에서 ‘문화향수권 신장’을 추구하면서 2002년부터는 ‘문화예술향수 기회확대’ 정책으로 변화되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통합이 강조되면서 실질적인 문화예술활동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중심의 교육사업들이 만들어져 왔음.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은 기존의 장애인 능력개발 훈련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접함으로써 흥미로운 활동을 통해 여가를 선용하며, 이를 통해 잠재된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선행연구들에서 보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과 교육이 장애학생들의 학업, 교육, 사회적응기술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장애예술가들에게는 장애정체성을 확립하고 장애를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며,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 역할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음.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여 있는 실시하고 있다. 분야별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장애인)의 체험·학습·창작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향유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 중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방학주말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교육사업의 대상을 장애아동에서 가족 전체로 확대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매개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이해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활동가 파견사업은 수혜자의 욕구를 파악한 문화예술교육 설계식 사업구조를 개발하여 적용하되 ‘예술가 친구사귀기’라는 부제를 통해 장애인이 단순한 대상자가 아니라 문화예술활동에 있어서 ‘참여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있음.

방학주말 프로그램의 성과는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자매와의 문화예술관련 공동 참여의 기회를 통해 상호 협동 및 소통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장애인 중심의 예술교육 사업에서 장애인가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장애아동 양육자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활동가파견사업의 성과는 사회복지사를 통한 프로그램 조정이 아닌, 예술가와 장애인의 직접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프로젝트 설계 방식 추진으로 일방적인 교육내용의 전달방식이 아닌, ‘활동가의 예술 활동’에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방식의 접근이 되어 장애인의 참여와 선택을 통한 프로젝트 설계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교육대상’으로서의 참여자 대상화를 지양, ‘참여주체’로서의 재조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에 대해 수량화 된 집단적 성과평가로는 문화예술이 갖는 내면의 변화 즉, 개인의 심상 변화를 통해 행동양태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의 효과성을 탐색하고, 이러한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적용된 방법들을 살펴봄으로서 사업의 성과와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을 발견해 보고자 하였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장애인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 중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이 갖는 의의 및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연구내용으로 구성되었음.

첫째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추구하는 효과성이란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해 장애와 문화, 사회통합과 문화예술의 영향 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문화와 장애에 대한 의의 및 연관성을 찾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의 현황과 만족도 조사결과를 참고하였음.

두번째는 심층면접 및 FGI를 통한 질적연구방법으로써 이론과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한 주제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정보의 내용이 되는 주제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인식하여 이에 관련된 중요한 요소와 각 요소간의 상호관계를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기존 선행연구들과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한 사전목록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결정하고 인터뷰 후 개방코딩과 축코딩을 통해 주제들을 범주화하여 본 연구 주제의 통합모형을 제시하였음.

이론이 제시된 근거이론과 상황모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방학주말 프

로그래프와 활동가 파견사업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고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했거나 사용되었던 방법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함.

II.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의 이해

1.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의 의의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활동으로 얻게 되는 자아개념과 자아정체성 획득, 타인과의 협력의 포용성과 공감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 사회성을 강화, 가족 간의 유대강화 등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효과성을 얻고자하는 주 목적과 전 국민에게 주어지는 문화향수권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는 의미에서 실시되고 있음.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장애모델은 개인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넘어 장애를 ‘사람’ 으로부터 객체화시켜 장애에 대한 낙인감에서 자유롭게 하는 문화적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갖고 있는 문화적 능력까지 찾아내는 모델을 적용하고 있음.

문화예술은 장애인의 주류의 삶으로 끌어내어 사회통합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매개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인들을 문화예술활동이 벌어지는 장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파견사업은 물리적, 대인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업이라 평가할 수 있음.

심리적 재활 측면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은 장애인이 장애수용을 통해 장애정체감을 확립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지며, 문화예술을 통해 얻어진 자신

에 대한 가치 존중 등의 긍정적인 견해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 심리적 해방, 사회와의 소통과 참여 등 장애를 극복하고 승화하는 힘을 가져다 줌.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가 많아 가족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는데,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기분을 가족과 공유함으로써 장애로 인해 야기된 심리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 가족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음.

이러한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기존의 반복학습과 훈련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틀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시도하였으며, 이는 장애특성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사람에게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수용과 인정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인지론적 교육방법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에서 장애인의 평등한 문화생활 참여와 문화적 잠재력과 능력 활용의 기회 보장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음.

2. 복지기관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현황

1) 장애아동 가족 대상 방학·주말 프로그램

방학·주말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 가족구성원 간에 정서적 공감 및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추진방식과 형식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획사업임.

장애인 가족 중 부모-장애아동, 장애아동-비장애 형제자매, 장애아동의 비장애 형제자매-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양한 복합 그룹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전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취지와 효과성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가족이 가족구성원인 장애인이 참여하는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2013년도에 시범사업으로서 17개 반에서 운영되었고 484명이 참여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54개 반에서 682명이 참여하였음.

방학주말 프로그램의 성과로는 첫째,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자매와의 문화예술관련 공동 참여의 기회를 통해 상호 협동 및 소통의 계기 마련, 둘째, 장애인 중심의 예술교육 사업에서 장애인가족으로 대상 확대의 계기 마련, 셋째, 장애아동 양육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장애아동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지지기반 마련 등이라 할 수 있음.

2) 활동가 파견사업

활동가 파견사업은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대상이 지적·발달장애 아동 위주의 사업으로만 이루어지던 것에서 확장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장애인, 고령 및 여성장애인, 유형별(시각, 청각)장애인 등이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서 수행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활동가(예술가)를 파견하여 해당 참여자와 활동가가 협업하여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성 프로그램임.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된 2~4명의 활동가들이 공조하여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되 장애인이 예술가를 친구로 사귀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2013년도의 활동가 파견사업은 총

5개 시설에 12명의 활동가가 투입되어 진행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11개 시설에 31명의 활동가가 파견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활동가 파견사업은 처음으로 장애인의 참여와 선택을 통한 프로젝트 설계 방식을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제공자인 사회복지사를 통한 프로그램 조정이 아닌, 예술가와 장애인의 직접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함으로서 일방적인 교육내용의 전달 방식이 아닌, ‘활동가의 예술 활동에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방식의 접근’을 시도하여 장애인이 ‘교육대상’이 아닌 ‘참여주체’로서 재조명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음.

Ⅲ. 심층면접 및 분석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세 단계로 연구를 설계하였음.

첫째, 문화예술교육으로 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터넷조사와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를 실시함(Creswell, 1998).

둘째, 장애인문화예술교육 현장탐색 단계로서 2013년부터 기획사업으로 진행된 본 사업의 진행현황과 그간의 평가 등을 분석하고 종합하며 기술, 해석과정을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함.

셋째,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의 “실제”를 발견하는 단계로서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전형적 사례선택기법과 이론적 표본 추출에 근거하여 현장의 대표적 사례이면서도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의 사업유형과 개념에 적합한 대상을 선택함.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방학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와 달라진 점, 담당자와 예술강사 또는 활동가에게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달라진 점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적용된 방법들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 심층면담 시 미리 동의를 구한 후 내용을 녹취하고 전사 및 코딩 과정을 거쳐 현상학적 방법에 근거한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과 해석과정을 거쳤음.

2. 연구자 및 연구참여자

연구자는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을 이루기 위한 장애인의 종합적 재활에 대해 전문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회통합,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으로서 문화예술활동과 그것이 주는 재활학적 의미에 집중해왔으나 이번 복지기관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기획사업으로 진행된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과 같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예술가의 창조적 능력이 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내용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를 조명하되,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담당자, 예술강사 및 활동가의 이야기를 통해 들여다보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진행하였으며, 관련된 효과성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가족상담 및 치료, 재활학, 재활심리학, 미학, 장애학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방학주말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 참여자, 담당자, 예술강사 등 총 13명을 선정하였으며, 참여자 그룹은 각각 장애아동의 부, 장애아동 당사자, 장애아동의 형제 등으로 구성되었고, 담당자 그룹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의 특성

을 각각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역 안배를 하여 선정하였음. 예술강사는 총 6개의 분야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음.

활동가 파견사업에서는 활동가의 분야를 선정기준으로 하였고 팀별 협업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팀장과 팀원이 함께 인터뷰한 경우가 많았음.

1) 장애아동 가족대상 방학주말 프로그램 연구참여자

방학주말 프로그램의 인터뷰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참여자 5명, 담당자 5명, 예술강사 2명에게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인터뷰하였음.

참여자는 모두 일대일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담당자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기본으로 하고 일대일 면접인터뷰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예술강사는 일대일 면접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참여자는 지적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 1명, 질병으로 인한 중도 뇌병변 장애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 1명, 지적장애아동 1명, 뇌병변 장애아동 1명, 장애를 가진 동생을 둔 누나 1명으로 참여자 유형을 골고루 반영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서울시, 대전시의 도시지역과 경기도 및 전라도의 농촌지역 참여자를 선정함.

또한 다양한 예술분야에서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미술, 연극, 영화, 미술, 무용 등의 분야를 골고루 포함시켜 인터뷰하였음.

2) 활동가 파견사업 연구참가자

활동가파견사업의 응답자는 연극 1명, 영화 1명, 목공 1명, 전통공예와 한복 1명, 패브릭 디자인 1명이었고 각 활동가마다 예술분야와 활동의 범위, 장애인 관련 경력 등이

달라 활동가의 다양성이 본 연구에 충분히 반영되었음.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문헌조사, 인터넷조사, 심층면담,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고 자료분석은 비교연구방법과 문화연구 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음.

첫째 장애인문화예술의 효과성에 관한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영국, 미국, 호주의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방식과 효과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병치 분석, 해석하였음.

둘째, 참여자 담당자, 예술강사 및 활동가 심층인터뷰에서는 영역분석, 분류분석, 성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Strauss(1987)의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거쳐 자료를 체계화하였음.

코딩이후 귀납적 범주 분석에 따라 각 개념을 범주화하고 반복되는 내용과 중요하게 강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어를 추출하여 핵심요소를 탐색하였고 자료의 정리과정에서 부호화하여 출처를 제시하였다.

4. 면접자료 분석결과

1) 프로그램의 효과성

(1) 방학주말 프로그램의 효과성

방학주말프로그램의 기획 동기는 가족관계의 증진과 사회성 향상, 주 양육 부모에 대한 휴식의 기회 제공 등이며 이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본래의 가치라기보다는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가족과 사회를 인식하여 사회적 환경에 개입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한 단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효과성을 아홉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첫째, 너무나 익숙한 것이 가족관계이지만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어 가족역기능이 심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역기능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둘째, 장애아동의 아버지가 주말에 장애아동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동료의식을 가진 다른 장애아동의 아버지와 교류하는 기회가 되고 서로 이해해주는 친구가 생기는 효과가 있었음.

셋째, 장애라는 문제를 자신의 가족만이 가진 문제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로 타인과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하고 있었음.

넷째,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집단활동을 통해 장애아동의 우울감이 감소되고, 타인과 교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며, 적극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됨.

다섯째, 문화예술활동을 함으로써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심리적 위축감이나 정신병리적 증상이 감소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도 변화되고 있음.

여섯째, 흔히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예술분야를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접하게 됨으로서 심도 있는 예술적 접근이 가능했고 이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

하여 장애아동의 재능이나 소질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며, 이러한 활동을 즐겁게 접하여 내면화되고 있었음.

일곱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주 양육자의 휴식시간이 제공되는 이점과 함께 주 양육자에게만 맡겨졌던 장애아동 양육과 관심을 아버지와 공유하여 부모 상호간에 이해가 증진되는 이점이 있었음.

여덟째, 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다른 장애아동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 내 자녀의 삶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아홉째, 장애자녀와 부담스럽지 않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음.

(2) 활동가 파견사업의 효과성

기획당시부터 정해진 목표 없이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만남을 통해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마련된 활동가 파견사업은 정형화 된 방식이 없어 개별적인 전문성이나 소양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목표달성에 대한 압박감 없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그 사업이 효과성을 분석해 보면 아래의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정책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을 이해하는 예술가가 늘어나고 경험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분야 보다 전문적인 방법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된 효과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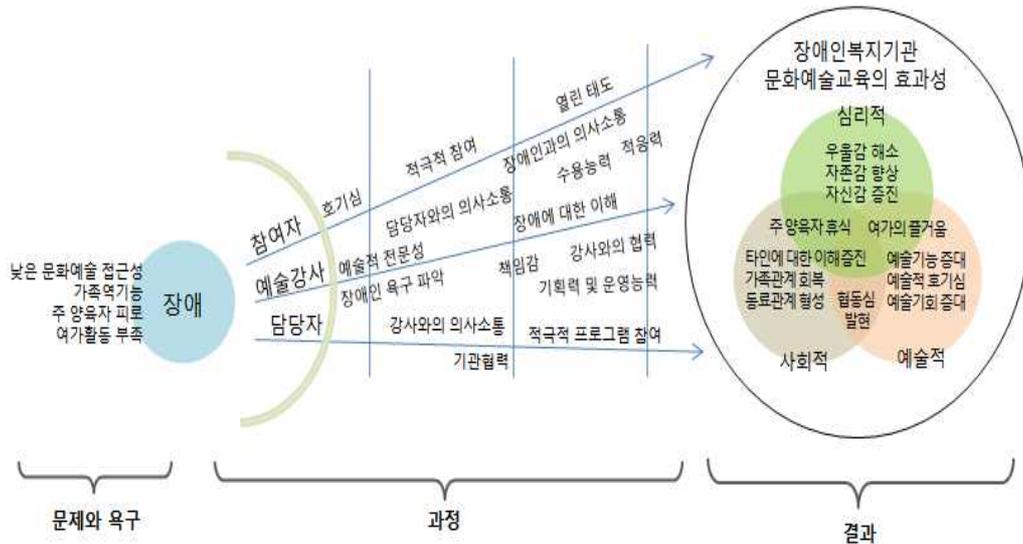
둘째, 활동가들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통해 장애인들이 이전에는 지시자와 수행자의 관계가 주된 형태 속에서 살아왔지만 활동가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진행되는 교육

시간동안 인간과 인간의 만남과 소통을 경험하는 효과가 있었음.

셋째, 참여 장애인들이 활동가와 몇 회기 이상 문화예술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만남을 갖고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활동가들은 장애인들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는 장애인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과 의사표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활동가들이 느끼게 되는 것임.

넷째, 참여 장애인들이 평소 생활이나 작업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갈등상황이 많이 줄어들고 협력하는 모습이 생겨나는 것이 보고되어 문화예술이라는 즐거운 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그것을 함께 하는 동료의식이 생기기도 함.

복지기관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의 효과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각 요소를 통합모형으로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사업 효과성 통합모형

IV. 제언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의 개선점과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첫째,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을 향유함으로써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이러한 활동이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데 초점을 둔 문화예술로 정착되도록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증대해나가야 할 것임.

둘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예술가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아무리 예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장애인을 비롯한 모두에게 예술을 잘 접하도록 하는 능력과는 다를 수 있음. 교육의 효과는 교육의 대상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졌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때에 담보될 수 있고 특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예술강사와 활동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셋째, 기자재 지원에 있어서 장르에 따른 탄력성 부여가 필요함.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장르가 6개 분야 이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지만 10만원으로 한정된 기자재 구입비는 적당한 기자재를 찾지 못해 이미 복지관에 있는 것을 한 번 구입하게 된다면, 꼭 필요하지만 포기해야한다면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기관도 있으므로 장르나 교육방법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을 두어 창의적인 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음.

넷째, 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강사 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서울과 경기지역에는 예술강사나 활동가들이 충분하고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하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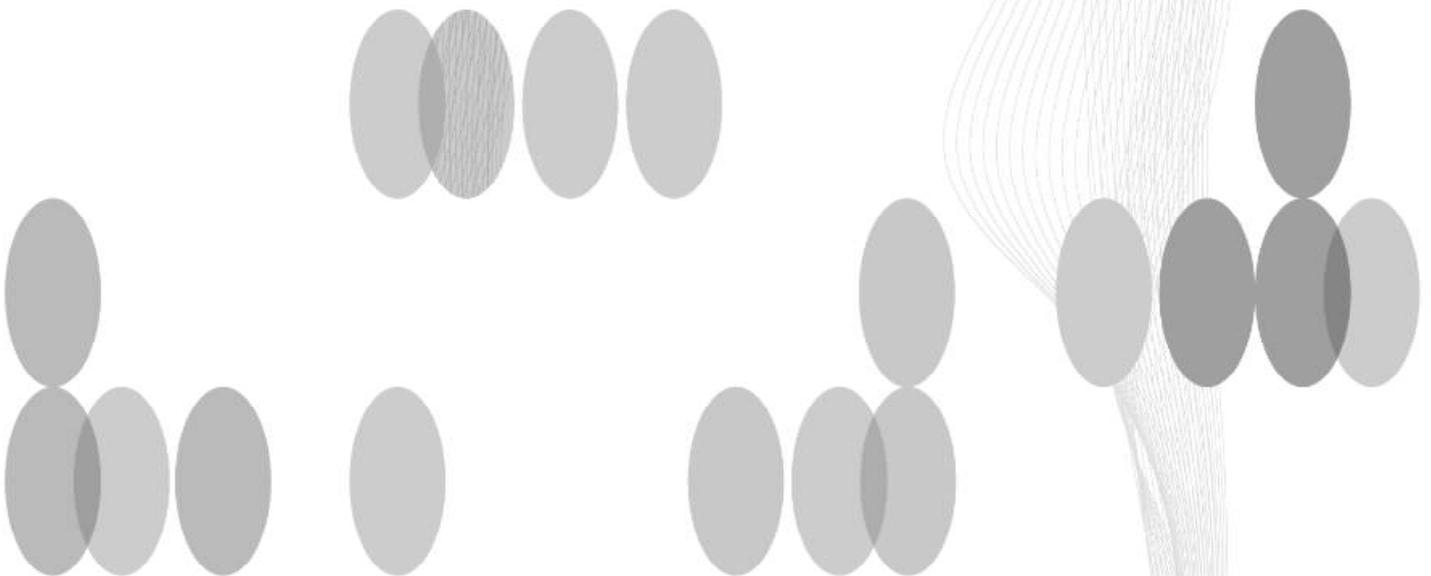
리도 적정하여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마음껏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방의 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특정한 예술분야에만 한정하지 말고 그 지방의 특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지방의 대학들과 연계한 문화예술강사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임.

다섯째, 문화예술을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기획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음.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장애인의 예술적 잠재력을 수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시대적 패러다임에 따라 장애인의 삶은 시혜적 삶에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창조적이고 즐거운 활동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향후 기획사업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공모를 시도해보는 것도 바람직함.

20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평가 질적연구
(방학주말 프로그램/활동가 파견사업)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으로 정의된다. 문화와 예술을 융합한 복합어인 문화예술은 예술 활동이 있는 문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문학예술, 영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음악예술 등 다양한 예술을 포함한 문화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위키백과).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정책으로 나타난 것은 1973년 문화예술진흥원(현재의 문화예술위원회)이 설립된 시기부터라 할 수 있다. 당시 발표된 문예중흥선언에서는 “한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인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며,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라고 하여, 문화예술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국민에게 스며들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하다는 국가적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렇게 도입된 우리나라 문화예술정책은 우선 창작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1인당 GNP가 2,000달러를 넘어선 1983년 이후 부터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고조와 경제력 신장에 따른 문화재정의 증가로 향수 진작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관심은 모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정책보다 10년 이상 늦게 복권기금에서 ‘장애인문화향수권신장’ 을 지원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까지 328건에 10억 2,45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02년부터는 ‘문화예술향수기회확대’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에는 국고 이관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인 창작가에게 지원하거나 전문예술가가 창작한 예술을 감

상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장애인이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예술적인 표현활동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며 정서를 계발하고 전인적인 인간형성에 기여하는 등의 풍부한 이점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은 이러한 장애인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성향을 증진시키고자 도입되었다. 기존의 문화예술향수 사업이 전문예술가의 산물을 감상하는 기회제공에 그쳤다면 문화예술교육사업은 교육을 통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자신을 표현한다는 데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하겠다. 그 중 활동가파견 사업은 장애인의 교육현장 접근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활동가가 접근가능한 이용시설에 파견되어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이는 이점이 있으며, 일방적 전달방식이 아닌 예술가와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예술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참여대상이 다양화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사업운영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또한 방학주말 프로그램은 방학이나 주말 등 여유로운 시간에 문화예술을 매개로 장애가족 구성원 간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아동과 비장애형제자매 또는 양육자가 함께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협동과 소통의 계기 및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은 기존의 장애인의 능력개발 훈련위주로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흥미로운 활동과 이를 매개로 한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즐거움과 능력개발을 이루어내는 효과를 갖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갖는 효과성에 대해 Deasy(2002)는 장애인문화예술 활동과 교육이 장애 학생들의 학업, 교육, 사회적응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이며, 특히 비장애학생에 비해 장애학생들의 예술활동이 학업과 능력 개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예를 들어, 드라마나 연기 활동은 고차원적인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음악은 언어 학습의 효과를 높이며, 예술 활동은 문장 능력과 작문 실력을 높인다는 것을 발견함). 또한 영국과 미국의 장애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Jennifer Sullivan Sulewski·Heike Boeltzig·Rooshey Hasnain(2012)의 연구에서는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에게서 장애정체성을 받

아들이고 형성하는데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이 수동적인 대상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정체성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후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 중 방학주말 프로그램이 3년 간 진행되었고 참여자의 만족도에 대한 양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만족도 조사가 과연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목표로 제시했던 장애인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어떠한 요인이 만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효과성이 개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규명을 통해 이전에 단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된 만족도와 달리 각 피교육자에게 내재된 만족도 요인을 분석하여, 기존의 장애인문화예술교육과 방학주말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그 효과성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방학 주말 활동가파견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분야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수행 기관, 예술강사, 참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중심의 질적 연구를 통해 방학주말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과성에 이르기까지 적용된 방법들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 첫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의의 고찰
- 둘째,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의 효과성 탐색
-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적용된 방법 탐색
- 넷째, 사업의 개선점과 사업 방향을 설정을 위한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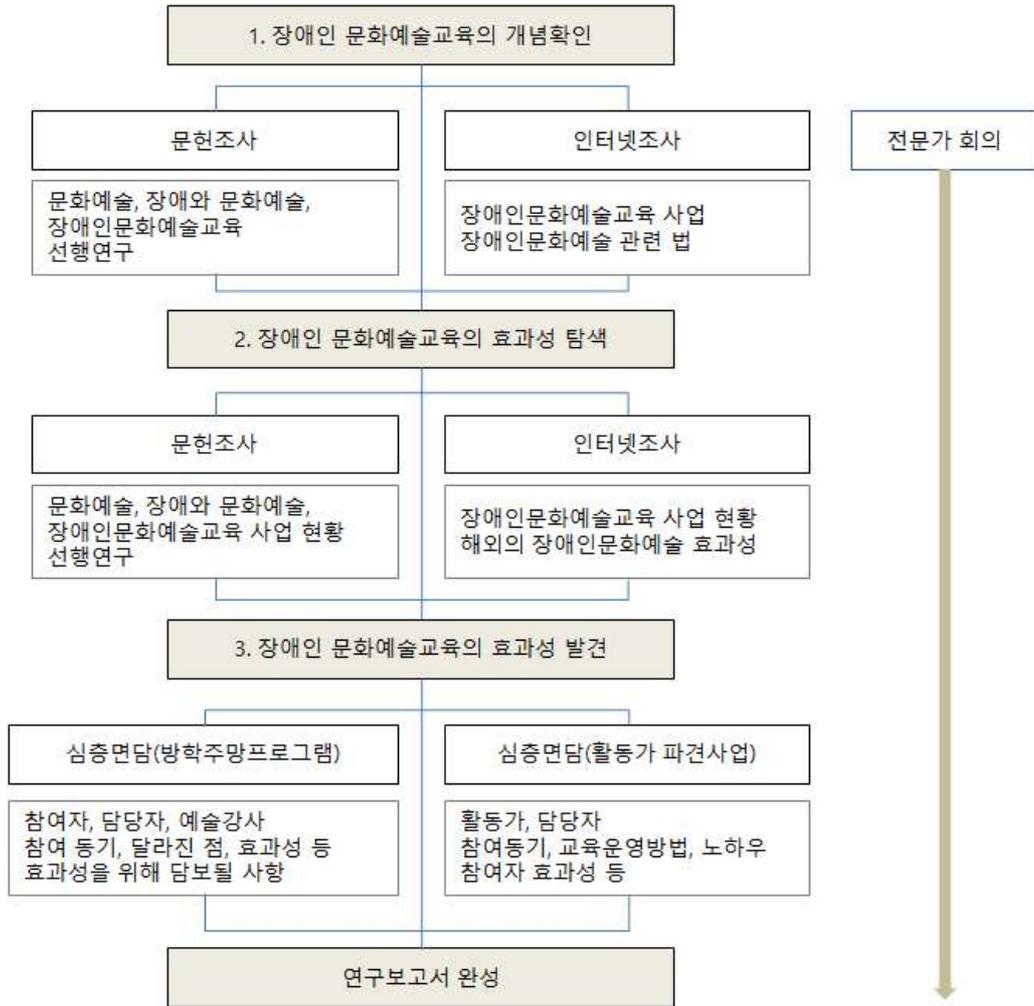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세 단계로 연구를 설계하였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으로 장애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터넷조사와 문화예술교육 효과를 중심으로 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Creswell, 1998). 둘째, 장애인문화예술교육 현장탐색 단계이다. 2013년부터 기획사업으로 진행된 본 사업의 진행현황과 그간의 평가 등을 분석하고 종합하며 기술, 해석과정을 통해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의 “실제”를 발견하는 단계이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전형적 사례선택기법과 이론적 표본 추출에 근거하여 현장의 대표적 사례이면서도 본 연구에서 검토한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의 사업유형과 개념에 적합한 대상을 선택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방학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와 달라진 점, 담당자와 예술강사 또는 활동가에게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달라진 점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적용된 방법들을 중심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시 미리 동의를 구한 후 내용을 녹취하고 전사 및 코딩 과정을 거쳐 현상학적 방법에 근거한 귀납적 범주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과 해석과정을 거쳤다.

[표1-1] 면담 내용

구분	내용
참여자	참여동기, 분야선택이유, 프로그램, 강사, 수업환경 만족이유, 담당자와 의사소통 변화된 점, 효과성 프로그램
담당자	수행기관 신청 동기, 분야 선정 이유, 기관 차원의 기대효과 참여자 선정 조건과 방식, 참여자와의 의사소통, 강사 선정 조건과 방식, 장애이해 수준 담보방법, 강사와 의사소통 교육장과 기자재, 회기의 구성, 담당자의 역할과 개입 수준, 참여자 효과성과 촉진방법
예술강사	예술강사 지원동기, 참여자 이해를 위한 방법, 효과성을 위한 수업 노하우, 참여자 효과성과 촉진방법 수업 시 발견한 특성을 기관 담당자에게 연계하는 방법



[그림1-1] 연구 설계

3.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

질적 연구로서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의 성찰, 삼각검 증법, 동료 간 협의를 활용하였다(Lincoln & Guba, 1985). 첫째, 연구자의 성찰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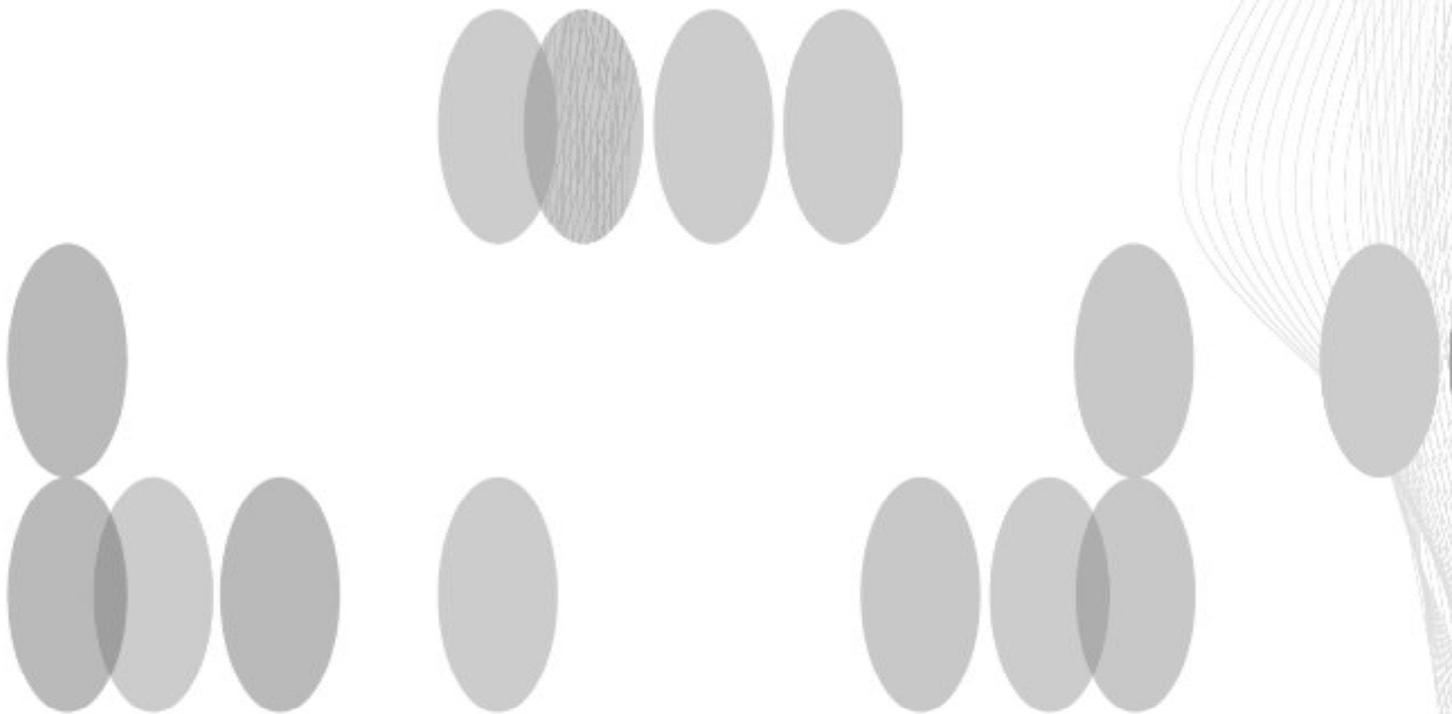
해 연구과정을 반성하고, 수시로 연구내용의 기술과 연구기법의 활용을 확인했다. 앞서 밝혔듯, 이 연구는 장애학 분야 뿐만 아니라 연구자에게 매우 의미있는 연구이다. 그러므로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성심을 다하고, 면담을 위해 협조하는 교육자들에게 면담 및 관찰 동의, 녹음, 관련자료 허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계획한 연구의 절차 및 단계를 준수하며 연구에 임했다.

둘째,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자료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Denzin, 1989).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라는 커다란 패러다임 속에서 비교연구방법과 문화연구 분석방법의 논리와 기법을 활용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 검토(member checks)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도출된 해석을 참여자에게 다시 점검하여 자료 수집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면담 전에 미리 대략적인 면담 질문을 제공하고, 이에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답변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다. 연구 참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면담 내용은 모두 익명 처리하였으며,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넷째,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통해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독단적인 주관성을 배제하도록 노력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 2명에게는 장애인문화예술교육과 질적연구 전반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장애인문화예술분야의 공무원 출신 장애인단체 협회장 1명에게는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자문을, 장애인을 프로 문화예술인으로 성장시키는 엔터테인먼트 대표 1명에게는 문화예술활동이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측면의 자문을 구하였다. 이와 같이 동료 간 협의를 통해 자료 분석 및 해석상의 오류를 최소화하였다.

II. 문헌고찰



1. 장애인문화예술교육의 이해

1) 문화예술교육의 의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이 이전에는 문화예술교육이 창의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과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정체성을 획득하고,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 협력할 수 있는 포용성을 기르며, 문화예술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를 일구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보다 확대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양현미, 2010).

또한 문화예술경험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통해 공감능력과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기능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향상을 돕는다고 보고하고 있고 특히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활동의 경우 참여자 간의 유대관계만이 아니라 강사나 교육자와 인간적이고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가정이나 지역사회로 확대되어 가족 간 의사소통기회가 향상되고, 지역사회 참여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정현수, 2013).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자아개념을 건전하게 형성할 수 있는데, 자아개념의 획득은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며, 다양한 활동이나 상황에 대한 타인들의 태도를 이해하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고 조절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장애아동의 근면성과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을 주며, 장애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고양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진취적인 삶을 사도록 인생의 개척자가 되는 원동력이 된다. 또한 자연스러운 또래경험을 통해 관계형성 기술을 익히고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성숙한 사고와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나이, 성별, 장애, 경제적 여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 없이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도 이러한 차원에서 보장받는 것이다. 즉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은 권리차원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2. 장애와 문화예술

1) 장애의 문화적 모델

문화는 인간의 생활을 둘러싼 환경적 요소 중 가장 큰 의미로서 지식, 신앙, 예술, 법률, 도덕, 관습과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하여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라 할 수 있다(Tylor, E. B.)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는 인간의 사회생활의 산물이며, 인간의 생활은 문화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문화가 인간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장애의 문화적 모델이 등장하였다.

기존의 장애 모델은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로 양립하였고, 전문가의 치료와 교육 중심의 개별적 모델과 사회가 장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므로 사회환경을 변화시켜야 장애가 경감된다는 사회적 모델이 주류를 이루어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문화적 환경까지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었고, 이제는 장애를 인간의 사회적, 환경적인 다양함에서 오는 다양성 중의 하나로 인식하는 입장의 문화적 모델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사회적 모델이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장애를 함께 포함하여 장애로 본다면 문화적 모델은 장애를 '사람'으로부터 객체화시켜 장애에 대한 낙인감(stigma)에서 자유롭게 한다. 문화적 모델은 이러한 객체화를 통해 장애인이 갖고 있는 문화적 능력을 찾아낸다.

문화예술은 이러한 문화의 한 영역으로 창조적 활동이 있는 분야 - 문화예술진흥법에 서서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으로 지칭함 -를 일컫는 것이며, 가장 의미있게 드러나는 분야이다.

2) 문화예술활동과 장애인의 사회통합

문화예술활동은 장애인의 문화향수권을 보장하는 일차적 의미 외에 문화예술활동 과정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 특히 집단적인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장애로 인해 결여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회복하는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 ‘통합’이란 한 개인이 가치있는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인격적인 개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배제나 거부로 인해 주류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보다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즉, 장애인들을 문화예술활동이 벌어지는 장으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필요한 것이다(홍애령, 2013).

Wright(1980)에 의하면 행동적 반응은 환경의 압력에 의한 반응과 내면적 정신과정의 반응이 합쳐진 것으로 높은 수준의 자존심이나 긍정적 자기존중감 같은 내면적인 상태를 바람직한 개인적 적응과 관련시키지만 그와 동시에 내면적 적응의 성공정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물리적 대인적 환경의 형성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적응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방학주말프로그램과 활동가과건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물리적, 대인적 환경을 형성함으로써 참여자의 내면적 상태를 바람직한 적응상태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할 역량을 갖출 뿐 아니라 집단활동을 하거나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예술가를 친구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3) 문화예술교육의 심리적 재활 효과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는 장애인들은 심리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제 등의 여러 종류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Livneh (2001)은 장애인이 장애를 수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리적, 경제적, 혹은 사회적 영역의 여러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본인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적 혹은 기능적 한계뿐만 아니라 본인의 심리적 상태, 주위 가족이나 사람들의 지지, 경제적 자립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바람직한 사회 참여와 복귀를 성취할 수 있다 (Crewe, 1997; Livneh, 2001; Vash & Crewe, 2004).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인은 장애정체감을 확립하고 장애수용능력을 높임으로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애정체감은 ‘장애인만이 가질 수 있는 장애 및 장애인의 삶의 태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라고 정의되는데(이익섭, 신은경, 2007) 자신의 장애에 대한 장애정체감의 확인은 장애수용을 도울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장애수용은 ‘장애로 인해 자신이 가치절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의 장애를 단지 불편함이나 제한을 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Livneh & Wilson), 장애인이 자신의 재능이나 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됨으로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 심리적 해방 그리고 바깥세계와의 소통과 참여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 장애수용이란 장애로 인한 가치상실 단계를 벗어나 자신의 잔존 능력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장애와 관련된 상실감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더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계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수용은 상실(loss)에 대한 수용으로 개념화되기도 한다(Keaney & Glueckauf, 1993; Wright, 1983 재인용 박자경, 2009).

이와 같은 맥락에서 Wright (1983 재인용 박자경, 2009)는 장애수용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서 자신이 가진 다른 자산이나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 (transformation), 손상에 가치를 두던 것을 다른 가치로 확장하는 것 (enlargement), 손상을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 것 (containment), 그리고 신체나 외

모를 중요시하던 것을 줄여나가는 것(subordination)으로 설명한다.

장애아동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변경희·공마리아·정병은(2012)은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과 함께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문화예술활동의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승화하는 힘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신체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며, 감정의 분출을 통해 감정의 정화와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4) 가족과 문화예술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단위인 가족은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그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지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가정은 부모나 친인척 또는 형제 등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최초로 문화예술을 접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며 특히 핵가족과, 저출산 고령화시대, 가족의 해체 등 수 많은 가족 병리현상을 해결하고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 중의 하나가 가족 문화예술교육이라 하겠다. 가족에서 대부분 문화적 접촉의 시작이 이루어지며 평생을 좌우할 문화 향유력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환경이기도 하다. 대부분 부모나 형제들로 인한 영향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단순한 정서함양이나 취지, 활동 차원에서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까지 그 수위와 방향이 결정된다.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들에 대한 외국의 사례 중 영국의 CCE에서는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것을 진작함으로써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도록 함으로써 민주적이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을 창의성 제고(promoting creativity), 정체성 강화(strengthening identities), 가족 유대 강화(strengthening families), 창조산업 발전(advancing creative industries), 공동체 형성(building communities)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가족은 이러한 효과

와 더불어 또 다른 부가적 효과들을 얻을 수 있다.

20세기 후반 이전에는 장애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고 개인의 치료에 집중하였지만 현 시대적 패러다임은 장애아동의 문제를 가족의 상호 영향에 무게를 두고 가족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가족 또한 장애당사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도 가족 중심으로 확대되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마련되는가 하면, 장애인복지에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아동과 그 구성원 일부에게 제공되는 가족지원이 장애아동을 포함한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은 서로에게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는 것처럼(Bailey & Simeonsson, 1988) 장애아동과 가족의 동반프로그램의 효과는 개인을 넘어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겠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인 부모 참여가 조기 장애아동 실천개입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장애아동의 변화와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는 보고가 있으며(Torre, 1994; Buceta & Torres, 1995; Torres & Buceta, 1998),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장애아동부모에게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양육이나 교육훈련 기술과 접목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학교나 복지관 등의 프로그램에서 얻고자하는 목적을 더욱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Gargiulo & Graves, 1991).

장애아동 가족구성원들은 일반 가정에 비해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가 많아 가족 역기능 발생의 비율이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 중심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그 성격은 가족 스스로 자신과 장애아동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에 가족프로그램의 의의가 있다.

장애아동의 가족이 함께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동일한 미적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기분을 가족과 공유함으로써 장애로 인해 야기된 심리적 갈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가족과 함께하는 방학주말 프로그램의 의의라 하겠다.

5) 문화예술을 통한 인지론적 의사소통

기존의 특수교육은 장애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적응행동을 늘려나가는 반복

학습과 훈련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지만 본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중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은 기능중심이나 치료 중심이 아닌 ‘문화예술’이라는 주제로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예술강사나 활동가에게 정형화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강제적인 틀로 참여자를 유도하지 않지만 문화예술을 느끼고 공감하도록 하여 내적 반항을 이끌어내고 함께 공감하는 것에서 만족을 얻도록 자유로운 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유럽의 캠프힐 모델에서 지향하는 인지론적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애특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가치와 존엄성, 수용과 인정 등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교육의 특징은 교육자가 선입견을 갖지 않으며, 차별을 금기하면서 만남에서부터 상대방에 대하여 가능한 한 좋은 평가태도를 가지며, 상대방의 행동이나 정적인 상태에서 장애아동이 교육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자에게 공감 혹은 반감 중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지, 무엇보다도 장애아동이 어떤 것을 힘들어 하고 있으며 어떤 운명을 감당해야 하는 가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교육방식은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가치평하 하거나 낮게 평가하지 않고, 장애아동의 다른 점을 존중할 준비를 하며, 외모, 장애, 행동거지, 정신성, 성격들이 교육자에게 낮설더라도 존중해야 하며, 교육자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거라면 스스로 하도록 장애아동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통찰을 기본으로 한다. 장애아동을 바라볼 때 교육자가 장애아동에 대해 갖고 있는 모습에 꿰맞추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것, 장애아동에게 발견된 새로운 측면을 언제나 받아들이는 것, 장애아동의 감정을 동일하게 느껴봄으로써 장애아동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특별히 드러난 상황에서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가장 단순하게 일어난 일 중에도 돌보아야 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하며, 같은 눈 높이에서 만남으로서 사람 사이의 영역에서 불손함이나 교만함, 거짓이 없는 태도를 갖고, 지능이 현저하게 낮은 장애인의 경우 이외에도 의사소통이 단절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정한 의도가 배제된 관심, 즉 전문지식이나 치료적, 교육적 목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가지며, 이러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그가 이렇게

‘다른 인격이다’ 라는 사실에서만 생겨난다는 기본적인 가치를 갖는 방법이다.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은 교육의 참여대상인 장애아동, 장애아동의 부모, 형제나 활동가와 친구가 되기로 한 장애인에 대해 예술강사와 예술활동가가 강제된 목표 없이 문화예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인지론적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내적만족감과 치유에 이르고 여기에서 얻은 에너지를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법적 지원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고 있는 행복추구권으로 접근해왔지만 문화예술이 특정 계층의 소유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고, 삶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이 되면서 원하는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014년 3월 31일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현행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의 법률이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어,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는데,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즉 취지는 문화권의 평등과 증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장애를 비롯한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4조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 지원하는 시설이나 단체의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는데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 사업을 실시, 경비 보조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장애인이 동등한 문화적 기회를 갖고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을 협약 가입국의 일반의무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사용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일반원칙 제 30조에서 장애인의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이 평등한 문화생활 참여와 문화자료의 접근성 보장, 일상 속의 문화 매체와 영화, 연극 등 문화활동의 접근성 보장,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문화적 잠재력과 능력의 활용 기회 보장 등을 명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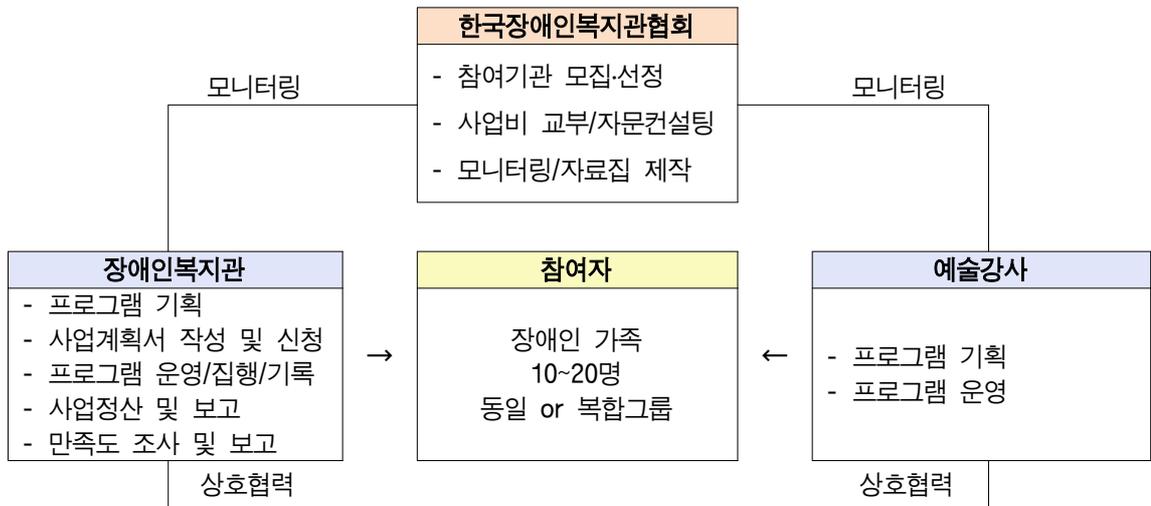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보장은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어서 장애인복지법 제10조 2에는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면서 장애인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에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법적 지원 명시 조항들을 통해 문화예술이 더 이상 특정 계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활동으로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3. 복지기관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현황

방학주말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체계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교부하며, 자문,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관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행하며 만족도 조사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보고한다. 이 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장애인복지관과 예술강사들을 모니터링하여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원을 한다.

<표2-1> 복지기관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 체계도



출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2014)

1) 장애아동가족 대상 방학·주말 프로그램

본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 대상의 방학 주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도출되어 2013년 도부터 기획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방학주말 프로그램은 방학기간(여름/겨울) 및 주말시간을 활용하여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및 예술강사가 협업하여 신규 기획 및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가족이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세부적인 내용을 가족이 공유할 수 있고 장애아동과 형제자매, 부모가 함께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문화예술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소통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공유할 수 있는 점 등의 기대효과를 가진다. 즉,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복지관 문화예술교육사업의 대상을 장애아동에서 가족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매개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있다 하겠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형식은 기존의 형식과는 달리 복지기관과 예술강사의 협력을 통해 진행방식 및 회기, 일정(시간) 등에서 자유롭게 기획되고 운영되었고 사업기간은 2013년 7월부터 12월내에 6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방학 프로그램은 방학기간인 7~8월, 12월 중에 운영되고 주말 프로그램은 학기 중 주말에 운영되었다. 2014년에도 동일한 기간에 진행되었으며 최소 8회기에서 12회기로구성되었다.

사업분야는 사업기간에 따라 여름방학 프로그램, 겨울방학 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상 문화예술 장르는 무용, 음악, 미술, 영화, 국악, 연극(최소 1개~최대 3개 분야 협업가능)등의 분야이다.

2013년도 사업의 경우 96개의 장애인복지관에서 1,357명의 장애인들이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총 67개소의 장애인복지관에 22,139천원의 교육기자재가 지원되었다. 2013년도에 최초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던 방학주말프로그램의 경우 17개반 총 484명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2014년에는 여름방학 29개반, 주말 4개반, 겨울방학 21개반 등 총 54개반으로 운영되었고 682명이 참여하였다.

201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최로, 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각 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방학주말프로그램은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 가족구성원 간에 정서적 공감 및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학주말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 담당자와 연계된 예술강사 간의 원활한 협업을 전제로 진행방식 및 회기, 일정(시간) 등 기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추진방식과 형식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되어 장애인복지관에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가족 중 다양한 복합 그룹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 전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취지와 효과성에 대해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해당 장애인이 참여하는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 있다.

방학주말프로그램을 위한 2014년도 사업예산은 2억원으로 장애인복지관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회기에 참여자 1인당 1만원, 외부활동 시 지원금 1인당 4만원이 지급되었고, 강사비로는 2시간 당 8만원이 지급되었다. 그 외에 교통비 추가 지원사항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

<표2-2> 방학주말 프로그램 개요

구 분	2013년	2014년
사업기간	2013년 7월 ~ 2013년 12월 - 방학프로그램: 7월 ~ 8월(여름), 12월(겨울) - 학기 중 주말 프로그램: ~ 12월 중 선택 가능	2014년 7월~2014년 12월 -방학프로그램: (여름)7월~8월 (겨울)12월 -학기 중 주말 프로그램: ~12월 중 토요일
대상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아동과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	
사업내용	예술강사와 복지기관이 협력하여 장애아동과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표2-3> 방학주말 프로그램 사업 실적

	구분	반수	참여자 수	지원예산
2013년도	여름방학	2	22명	3,400,000원
	주말	3	42명	8,000,000원
	겨울방학	12	176명	31,624,000원
	계	17	240명	43,024,000원
2014년도	여름방학	29개반	363명	77,886,800원
	주말	4개반	44명	10,588,000원
	겨울방학	21개반	275명	64,549,300원
	계	54개반	682명	153,024,100원

2013년도의 사업 성과로는 첫째, 장애아동과 비장애 형제자매와의 문화예술관련 공동 참여의 기회를 통해 상호 협동 및 소통의 계기 마련, 둘째, 장애인 중심의 예술교육 사업에서 장애인가족으로 대상 확대의 계기 마련, 셋째, 장애아동 양육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직접 참여를 통해, 장애아동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지지기반 마련 등으로 나타났다.

기 진행된 사업 평가(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3)에서 참여자(부모)에게 해당 참여하였던 강좌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평균 3.51(70.2%,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 사용)과 3.88(77.6%,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 사용)으로 나타나 참여자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기간을 연장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비장애형제자매나 장애아동의 부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단독 프로그램의 개설 욕구도 나타났었다. 또한 이러한 기회를 통해 외부 공연이나 체험의 기회를 갖는다는 면에서 참여자에게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활동가파견사업 (부제: 예술가 친구 사귀기)

본 사업은 기존 지적·발달장애 아동 위주의 사업대상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장애인, 고령 및 여성장애인, 유형별(시각, 청각)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수행된 사업으로 수혜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혁신의 성격을 갖고 도입되었다. 활동가파견사업은 수행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 활동가(예술가)를 파견하여 해당 참여자와 활동가가 협업하여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성 프로그램이다.

2013년도의 활동가 파견사업은 총 5개 시설에 12명의 활동가가 투입되어 진행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11개 시설에 31명의 활동가가 파견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활동가 파견사업은 프로젝트 팀으로 구성되어 2~4명의 활동가들이 공조하여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표2-4> 활동가 파견사업 개요

구 분	2013년	2014년
사업기간	2013. 7월 ~ 2014. 01월	2014년 7월 ~ 2015년 01월
대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등 (총 5개 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개소, 단기보호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야학 1개소	장애인거주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등 (총 11개 시설)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7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 장애인부모회 1개소
사업내용	시설에 예술가를 파견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진행 · 시설에 파견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예술가를 ‘활동가’로 정의 · 교육내용의 전달 방식이 아닌 ‘활동가의 예술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방식의 접근(초반 활동가와 참여자의 관계형성에 중점을 두고,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의 기회를 제공)	
추진방법	추천을 통한 전문가 프로젝트팀 구성 운영	

<표2-5> 활동가 파견사업 운영 실적

해당년도	시설명	활동가 수	관련 분야
2013	늘푸른집(단기보호시설)	2	미술
	기쁜우리복지관 공동생활가정	3	음악
	성모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2	미술, 영상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2	목공예, 미술
	노들장애인야학	3	문학, 미술, 목공예 등
	영락주간보호시설	3	미술/사운드아트
	기쁜우리복지관 공동생활가정	3	사운드아트
2014	서대문장애인부모회	2	목공예
	성모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센터	3	영화연출/ 일러스트레이터/공간연출 힙합뮤지션(랩퍼)
	파란마음주간보호센터	3	미술/문학/음악(연주) /인문학/연극
	부산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2	미술
	성모주간보호센터	4	전통무용/국악
	위드주간보호센터	3	미술/비디오아트/미술
	서대문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3	사운드아트/미술
	비둘기주간보호시설	3	영상/미술
홀트일산복지타운	2	전통공예/한복/패브릭디자인	

2013년 활동가파견사업은 처음으로 장애인의 참여와 선택을 통한 프로젝트 설계 방식을 시도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제공자인 사회복지사를 통한 프로그램 조정이 아닌, 예술가와 장애인의 직접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함으로써 일방적인 교육내용의 전달방식이 아닌, ‘활동가의 예술 활동’에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방식의 접근을 시도하여 장애인이 ‘교육대상’이 아닌 ‘참여주체’로서 재조명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선행연구 분석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사회와 소통의 기회가 부족한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자기표현 함으로서 소통의 기회가 증대되고 상대와의 교감을 통해 자신의 장애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으며, 생활의 다양한 활동에서도 자발적이고 주도적 성향을 증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백령(2005)은 장애인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장애인이 주체자가 되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타자와의 소통을 통한 문화공동체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Deasy (2002)은 예술 활동이나 교육이 장애 학생들의 학업, 교육, 사회적응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예술 활동이 비장애 학생보다도 장애 학생들의 학업과 능력 개발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드라마나 연기 활동은 고차원적인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음악은 언어 학습의 효과를 높이며, 예술 활동은 문장 능력과 작문 실력을 높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제로 영국에서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VSA 예술/복스마겐 예술 컨테스트의 최종 결승 진출자였던 47명의 장애가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장애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젊은 장애 예술가들의 장애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통찰적인 결과를 발견하였고 예술과 장애가 서로 어떻게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ennifer Sullivan Sulewski, Heike Boeltzig, Rooshey Hasnain, 2012).

통합 예술활동의 학문적인 가치와 관련된 핵심적이며 기초적인 연구 결과는 예술활동과 인지적 및 학문적인 영역과의 연관성을 다룬 Eisner(2002)의 연구 결과를 들 수 있다. Eisner는 예술활동에 참여하면 할수록 개념에 대한 인식이 인지와 읽고 쓰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Eisner는 예술활동은 중대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도하며 예술활동은 여러 종류의 인지적 가치, 인식, 기억, 사건과 개념 분석과 이해를 위한 능력 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창조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신경학적 기능과 인식의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인지적 및 학업적 성취와 관련된 통합적인 예술활동에 대한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Eisner는 시각적 예술활동, 음악, 문학활동을 포함한 실용적인 경험이 학생의 이해능력을 어떻게 신장시키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예술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때로는 교육과정이나 수업 내용을 설계하여 학생들은 문제 해결 능력과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술활동을 포함하여 각기 다른 영역에서 취득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isner에 의하면 학생들이 예술활동을 하고 참여하는 동안 예술활동을 수행함은 물론 타 학업 영역으로 전이 가능한 관찰능력, 문제해결 능력, 구성능력, 의사소통 기술 등을 익힐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외의 여러 연구를 조사한 결과 예술활동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나 사회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다수의 연구에서 예술활동이나 예술지도가 장애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연관성을 밝히고 있다. Mentzer와 Boswell는 행동장애를 보이는 장애아동의 창의성에 운동과 시창작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운동 프로그램과 시창작 프로그램이 서로 통합된 경우 행동장애 아동의 창의성, 사회대인기술, 운동능력 등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Mason, Steedly, Thormann, 2012).

De la Cruz는 학습장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과 구두 언어 능력 개발에 창의적인 드라마가 미치는 정도와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창의적 드라마가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성과 사회 기술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Wilhelm의 연구 결과에서도 학습장애와 독서 장애로 진단받은 2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독서 능력이 시각 예술 활동을 함으로써 강화되었음을 발견하였다(Mason, Steedly, Thormann, 2012).

Mason, Steedly와 Thormann(2012)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인지적, 사회적 기술 향상과 관련하여 예술 활동이 장애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하였다. 1단계 연구에서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 16개 주에서 34개 집단 포커스 면접이

실시되었다. 2단계 연구에서는 장애학생들의 학업적, 인지적, 사회적, 예술적 능력 향상의 측정을 위해서 수업지침서(rubrics) 사용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7개주 출신의 7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파일럿 프로젝트는 포커스 집단 면접에서 도출된 결과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1단계와 2단계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예술 활동은 장애학생들이 학업 관련 영역과 관련된 지식을 표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많은 교사와 예술활동 지도사들은 동시에 예술활동이 장애학생의 학업을 증진하고 장애학생들의 관심사와 선호를 표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여러 사례를 제시하였다.

Winner와 Hetland (2000)는 1950년도부터 1999년도 사이에 예술 훈련과 학업성취도(예를 들어, 표준 언어 및 수리 능력)와의 연계성과 관련있는 11,467개의 학술 논문, 도서, 학위논문, 학회발표문, 기술적 보고서, 미발간 연구물, 미발간 자료 등을 포함한 188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메타 연구를 실시하였다. 메타 분석을 위해 사용된 기준으로는 샘플사이즈의 검증, 실험적 통제, 중요치 등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3영역에서 예술활동과 학업 성취도 간의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악 감상은 공간 및 시간과 관련된 추리 영역과 연관성이 높으며, 음악 연주 교육은 공간 추리 영역과 관련성이 높았으며 교실 드라마는 언어 추론 영역과 관련성이 높았다. 추가적으로 관련성 정도는 높지는 않으나 음악 연주 학습은 수학적 영역과 관련성이 있었으며 춤은 비언어적 영역과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Catterall(1998)의 연구에서는 25,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미 교육부 국가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학생들을 고차원예술활동에 참여한 그룹과 저차원 예술활동에 참여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차원 예술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의 학업 성취 영역에서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우수한 것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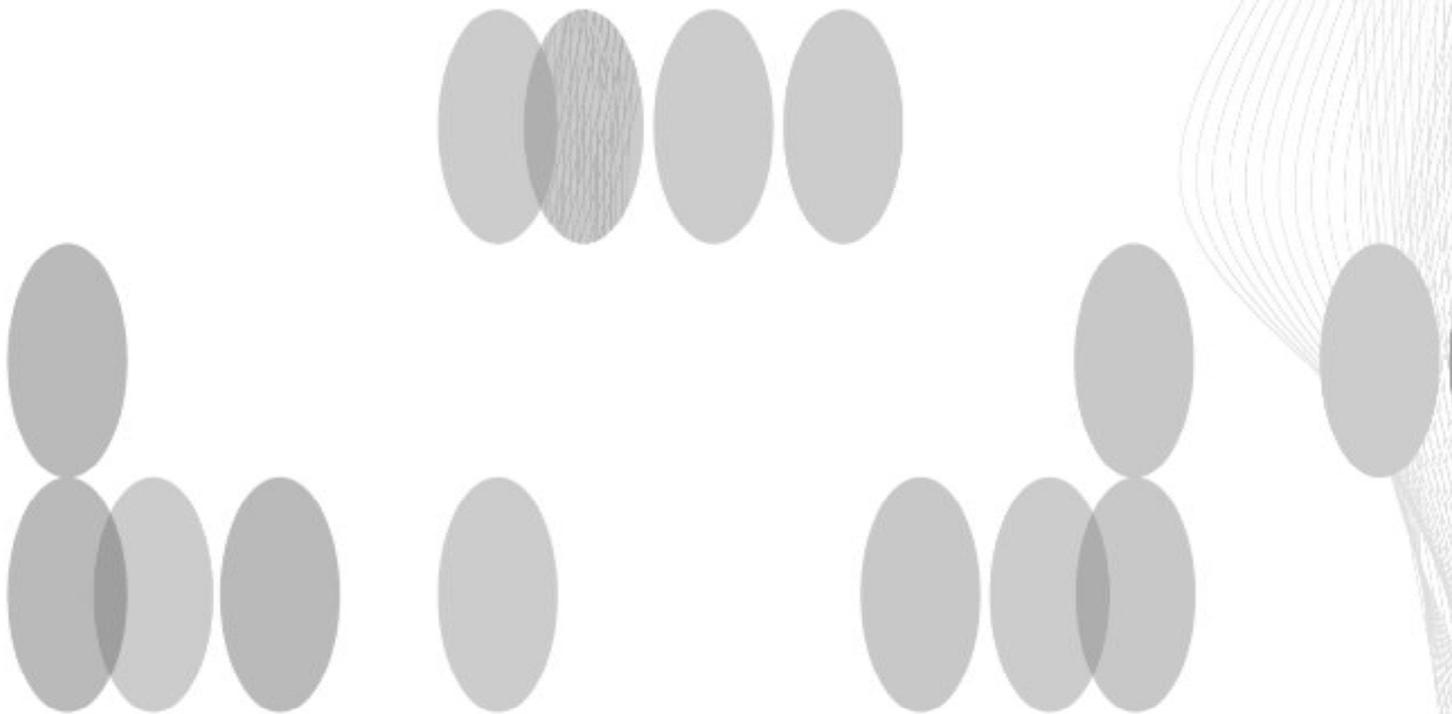
또한, 64개 연구를 종합하여 예술활동과 학생의 학업적 및 사회 기술 함양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Deasy (2002)에 의하면 예술활동의 특별한 공헌점을 밝히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의 발전에 있어 예술활동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비장애 학생과 비교하여 장애 학생이나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예

술활동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예술활동이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과 효과를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드라마는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언어 및 언어구사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음악 활동은 언어 학습과 연관성이 높으며, 예술 경험은 언어와 작문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예술활동이 장애인이나 장애학생의 장애 정체성의 인식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밝힌 연구도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Sullivan(2010)의 연구에서는 영국에서의 장애 예술과 미국에서의 장애 문화는 긍정적인 장애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Sullivan의 연구는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VSA 예술/복스바겐 예술 컨테스트의 최종 결승 진출자였던 47명의 장애가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장애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으로써 장애 예술가들의 자기소개서/응시서와 예술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조사 방식을 통해 연구자들은 장애 예술가들이 자신의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며 예술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또한 장애인이라는 정체성과 예술가라는 정체성과의 서로 교차하는 관계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젊은 장애 예술가들의 장애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통찰적인 결과를 발견하였고 예술과 장애가 서로 어떻게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 가능성 역시 제시하였다.

현재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은 기존의 장애인의 능력개발이 훈련위주로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흥미로운 활동과 이를 매개로 한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즐거움과 함께 능력개발도 이루어내는 효과와 함께 장애인이 지금까지 가졌던 수동적인 대상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정체성을 갖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후 자신의 삶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Ⅲ. 심층면접 및 FGI 분석결과



1. 연구 설계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에서 목표로 한 효과성과 파생된 효과성을 도출하기 위해 참여자, 예술강사, 담당자, 활동가로 주요 분석단위로 삼았다. 본 연구는 양적 조사 결과로 도출되고 있는 효과성과 만족도 수치만으로는 개인의 심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문화예술을 통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발견하고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보고자하는데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진은 문화예술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장애인이 문화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목록에 추가하여 질문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반표준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단서 제공 인터뷰의 형식을 따랐다. 내러티브 인터뷰의 경우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효과성과는 달리 장애로 인한 개인의 일상으로 지나치게 이야기가 흐른다든지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과 혼동하여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한 단서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이에 따라 답변을 하되 추가적으로 느낀점이나 기타 개인이 얻은 특별한 효과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Kelle(1996)에 의해 수정된 근거이론방식을 택하였는데, 사전에 이론을 통한 지식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검토를 통해 유용한 논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장애인의 삶에서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이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준다는 가설은 설정하지 않았으며, 살아가면서 접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재로서 문화예술이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향유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때문에 ‘문화예술’의 직접적 효과성 보다는 본 프로그램이 추구하고 있는 간접적인 효과성에 주목하였다.

<표3-1> 주요면접 질문내용

	질문내용
심층면접	프로그램이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렇게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과성을 도출하기 위해 조성된 것이나 적용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어떠한 점이 개선되었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2. 연구자 및 연구참여자

연구자는 장애인의 전인적 재활을 위하여 이루어져야하는 장애인의 종합적 재활에 전문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회통합,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 활동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으로서 문화예술활동과 그것이 주는 재활학적 의미에 집중해왔으나 이번 복지기관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기획사업으로 진행된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과 같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예술가의 창조적 능력이 프로그램의 진행과정과 내용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떠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를 조명하되,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담당자, 예술강사 및 활동가의 이야기를 통해 들여다보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진행하였으며, 관련된 효과성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가족상담 및 치료, 재활학, 재활심리학, 미학, 장애학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1) 방학주말 프로그램

방학주말 프로그램의 인터뷰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참여자 5명, 담당자 5명, 예술강사 3명에게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인터뷰하였다. 참여자는 모두 일대일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담당자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기본으로 하고 일대일 면접인터뷰를 추가적

으로 실시하였다. 예술강사는 일대일 면접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참여자 5명은 지적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 1명, 질병으로 인한 중도 뇌병변 장애 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 1명, 지적장애아동 1명, 뇌병변 장애아동 1명, 장애를 가진 동생을 둔 누나 1명으로 참여자 유형을 골고루 반영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방학주말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는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기 위해 서울시, 대전시의 도시지역과 경기도 및 전라도의 농촌지역 참여자를 선정하여 인터뷰하였다.

또한 다양한 예술분야에서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미술, 연극, 영화, 미술, 무용 등의 분야를 골고루 포함시켜 인터뷰하였다.

<표3-2> 방학주말 프로그램 참여자

	지역	분야	성별	장애 및 특징	나이
참여자1	경기도	미술과 연극 분야	남자	장애아동의 아버지	41
참여자2	전라북도	영화와 미술	남자	지적장애아동	14
참여자3	서울시	무용	여자	뇌병변아동어머니	42
참여자4	서울시	무용	여자	장애아동	12
참여자5	대전시	음악	여자	장애아동의 누나	8

방학주말 프로그램의 담당자는 모두 장애인복지관 소속 사회복지사였으며 대도시는 대전시, 중소도시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농촌지역은 충청남도의 도시규모에 따라 지역을 안배하여 조사하였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분야는 무용, 영화, 미술, 국악, 영화연극, 음악 등이었으며, 경력은 1년 미만의 새내기 사회복지사에서부터 경력 14년 차의 숙련된 사회복지사까지로 차이가 컸다.

<표3-3> 방학주말 프로그램 담당자

	지역	분야	성별	자격	나이
담당자1	경기도	무용	여	사회복지사	28
담당자2	경상남도	무용/영화/미술	여	사회복지사	38
담당자3	경기도	국악	남	사회복지사	35
담당자4	충청남도	영화연극	여	사회복지사	28
담당자5	대전광역시	음악	여	사회복지사	28

방학주말프로그램의 예술강사는 음악과 국악 분야의 강사를 인터뷰하였으며, 음악프로그램 예술강사는 음악치료를 전공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력 4년의 강사였으며, 국악 예술강사는 국악경력은 20여년이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처음 접해보는 강사여서 경력의 유무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표3-4> 방학주말 프로그램 예술강사 인터뷰 응답자

	지역	파견기관	분야	성별	나이
예술강사1	대전	장애인복지관	음악	여	31
예술강사2	경기	장애인복지관	국악	여	45
예술강사3	경기	장애인복지관	무용	여	58

2) 활동가 파견사업

활동가파견사업에서는 활동가의 분야를 선정기준으로 하였고 팀별 협업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팀장과 팀원이 함께 인터뷰한 경우가 많았다.

활동가파견사업의 응답자는 연극 1명, 영화 1명, 목공 1명, 전통공예와 한복 1명, 패브릭 디자인 1명이었으며, 영화분야 활동가2의 경우는 팀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투입되지 않고 다른 팀원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활동가

3의 경우는 장애인부모회와 양평 캠프힐 마을을 강사가 나서서 매칭한 케이스로서 그 이유는 목공분야는 특별히 마련된 목공작업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활동가가 직접 답사를 다녀가며 섭외하여 프로그램이 성사된 특징이 있다. 전통생활예술 분야의 활동가 5는 장애분야 경력은 없으나 문화예술교육위원회의 신규 분야 적용으로 제안 받아 활동가로 참여하게 된 특징이 있다. 따라서 개인이 갖는 다양성이 본 연구에 충분히 반영되었다.

<표3-5> 활동가파견사업 활동가 인터뷰 응답자

	복지시설유형	분야	성별	나이
활동가1	주간보호센터	연극	남	35세
활동가2	직업재활센터	영화	남	48세
활동가3	장애인부모회	목공	여	29세
활동가4	장애인부모회	목공	남	41세
활동가5	장애인거주시설	전통공예/ 한복	여	31세
활동가6	장애인거주시설	패브릭디자인	여	34세

3. 자료의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문헌조사, 인터넷조사, 심층면담,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첫째 문헌조사는 “장애인문화예술, 문화, 예술, 문화예술교육” 등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전자도서관의 검색(RISS)과 학술지검색(KISS)를 검색하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연구되었던 선행연구보고서를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에 실시되어오면서 출간된 사례집과 결과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인터넷조사에서는 문화예술의 개념을 정립하고 장애인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관련법을 검토하였다. 한국문화예

술교육진흥원 외에 장애인문화예술교육사업을 실시하는 사례를 검색하였다.

셋째, 심층면담에서는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의 큰 2개의 그룹을 구분하고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방학주말 프로그램에 대해 진행되는 현장을 방문하여 13명의 연구참여자와의 평균 50분 정도 면담하였고,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여 전사하여 파일로 저장하였다.

넷째,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수행기관 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회복지학과 교수 2명에게는 장애인문화예술교육과 질적연구 전반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고, 장애인문화예술분야의 공무원 출신 장애인단체 협회장 1인에게는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에 관한 자문을, 장애인을 프로 문화예술인으로 성장시키는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문화예술활동이 장애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측면의 자문을 구하였다.

자료분석은 비교연구방법과 문화연구 분석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첫째 장애인문화예술의 효과성에 관한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영국, 미국, 호주의 장애인문화예술활동의 방식과 효과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병치 분석, 해석하였다. 둘째, 참여자 담당자, 예술강사 및 활동가 심층인터뷰에서는 영역분석, 분류분석, 성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Strauss(1987)의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거쳐 자료를 체계화하였다.

코딩이후 귀납적 범주 분석에 따라 각 개념을 범주화하고 반복되는 내용과 중요하게 강조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어를 추출하여 핵심요소를 탐색하였다. 자료의 정리과정에서 부호화하여 출처를 제시하였다.

4. 면접자료 분석결과

장애인문화예술 교육사업 중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에서 얻게 된 효과성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적용된 방법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서 방학주말 프로그램에서는 가족관계의 증진, 사회성, 문화예술

을 통한 심리적 치료 효과, 문화예술 흥미 등 참여자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사례를 통해 분석해보았고, 이러한 변화들이 도출된 이유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부분에서 온 영향인지를 탐색하였다. 활동가과견사업에서는 사립과 소통의 증진, 감각 조절 및 사회성, 배려심 등 긍정적 변화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 적용된 방법들의 의미를 이론적 고찰과 함께 분석하였다.

1) 방학주말 프로그램의 효과성

(1) 참여자의 효과성

① 가족관계 증진

가족이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하기 때문에 가족이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가족 내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고 살고 있는지로 표현되는 가족 역사를 통해 갖게 되는 가족정체감이나 이미지로 자신의 가족을 떠올린다. 따라서 가족 관계는 단번에 형성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가족의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흔히 가족은 안식처, 편안한 곳, 믿음이 있는 곳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고통, 힘든 곳, 책임감, 어쩔 수 없는 곳으로 느끼기도 하는데, 장애가족 또한 전자가 존재하면서도 후자의 느낌을 일반 가정보다는 많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는 어려우므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방학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아동의 아버지에게서 처음으로 장애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경험하여 가족 관계 증진의 시작인 교류가 창조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이 엄마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정확히 몰랐으며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게임같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도 없었는데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였어요. 아이들은 언제나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아빠랑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했습니다.” (보호자1)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가족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됨으로서 참여자는 어색함과 기대를 동시에 갖게 되었지만 문화예술이라는 인간 내적인 본능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가치가 그 매개가 됨으로서 쉽게 어색함이 사라지고 친숙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참여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매우 어색했고 참여하기가 쑥스러웠으나 지낼수록 프로그램이 좋고 시간이 갈수록 좀 더 편안해졌습니다. 아이들과 집에서 쉽게 소품을 가지고 할 수 없는 활동들을 여기서 하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동심 역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했던 것들을 배워서 집에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가끔씩 외부활동도 하기도 했는데 연극을 보러가기도 하면서 지루하지도 않았고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보호자1)

가족은 유기체로서 전체성을 이루고자 하며, 구성요인들끼리 상호작용하면서 순환적 흐름을 갖는 조직이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있음으로서 단순한 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유지되고 강화되며, 가족 구성원의 관계가 패턴으로 형성되면서 일정한 흐름을 만들고 맥락을 형성하게 된다. 장애아동과 함께 방학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버지의 관계가 친밀해짐으로서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만 의존되어 있던 장애아동의 애착관계 및 대상에 변화가 있었고, 주 양육자로서 혼자에게만 떠맡겨졌던 어머니의 양육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게 되었다.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와 떨어지려고 하지 않으며 잠도 항상 엄마랑 같이 자는데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는 아빠랑도 간혹 잠을 자기도 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아빠랑 같이 자고 싶다고도 말한다. 전에는 엄마랑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울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빠랑도 마켓도 가고 다니기도 한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빠랑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이러한 좋은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아내도 자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과 여유를 갖게 되었다.” (보호자1)

② 사회성 향상

사회성은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이러한 능력에는 타인의 역할을 수용하는 능력, 상황에 적절한 기술이나 묘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이진숙, 2005). 사회적 상호작용은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서로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기술을 익힘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이한열, 2011). Harris의 집단사회화 이론에서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는 또래집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와 함께 부모, 교사와 그 외 다른 사람들도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과 양육태도, 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친밀할수록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또래의 영향에서는 독자적인 영향보다는 집단적인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때 상승효과가 있는 것이다(문경숙,2006).

“저희 아이는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되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었어요. 그래서 질병의 치료와 함께 우울증 치료도 병행하고 있는데, 정규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곳에는 또래 친구들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으면 우울증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고, 지금 참여함으로써 많이 좋아진 것을 느껴요. 이곳의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눈높이에 맞는 친구들과 서로 소통하는 점에서 친구도 생기고 사회성도 생기는 것 같아요.” (보호자2)

이러한 사회성 향상은 비단 장애아동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를 둔 아동들은 가정 내에서 관심에서 밀려나 있거나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지는 가족문화 속에서도 상당한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반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공적으로 달성해야하는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이 가정 내에서 가장 중요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 내 현실 속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위축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이것이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방학주말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같이 장애형제자매를 둔 아동집단과 형제자매인 장애아동들을 함께 만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동료집단이라는 동질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집단을 만난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소극적이던 이전의 모습을 탈피하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성이 발현되었다.

“지금까지 음악 프로그램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같은 것을 배웠는데, 피아노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피아노는 피아노 한 대 있는 공간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레슨 끝나면 계속 혼자 하다가 검사 받고 오는 방식인데, 여기는 재미있게 다함께 하니깐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훨씬 더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 7살 때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거든요, 자신 있게 잘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졌고 제가 나서서 하게 되는 성격으로 바뀌었어요.” (참여자5/장애아동의 누나)

“처음 비장애아동은 비장애 아동끼리, 장애아동은 장애아동끼리 앉고 서먹하였으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서로 의사소통 횟수가 많아지고, 쉬여서 활동하는 등 분위기가 좋아지는 효과성을 보였습니다.” (담당자1)

“형제자매와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가미되어 분위기가 좋고 아이들 간에 멀어졌던 사이가 좁혀졌다. 중간에 부모님과 통화를 하여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본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도 집단에 참여하는 친구와도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 사회성이 향상되었다.” (담당자3)

이러한 사회성의 효과가 아동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들은 어머니들과는 또 다른 말 못하는 어려움을 지니고 살아 가고 있다. 여느 가정처럼 맞벌이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책임을 거의 혼자 지고 있으며, 아내는 내조보다는 장애자녀를 돌보는데 지쳐있기 쉽다. 어려움을 속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를 찾기 어렵고, 자신의 성공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녀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워 심리적 좌절감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아내들은 또래 장애아동의 어머니들과 만남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장애아동의 아버지들은 이러한 기회마저 갖기 어렵다. 방학주말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자녀를 둔 아버지들 동료집단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아버지의 심리적 치료효과를 갖게 되었다.

“6가구가 서로 그룹을 만들어서 놀이를 하기도 하고 서로 소집단으로 나눠서 게임을 하기도 하면서 아버지나 아이들끼리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어요. 조금 친해지려고 하니 이제 종료되어서 아쉽고 좀 더 프로그램이 지속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호자1)

“장애자녀를 둔 엄마들 간의 사업이나 모임은 많은 반면, 아빠들은 장애에 대한 정보와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아빠간의 모임이 형성됨에 따라 아빠 간 연대가 높아졌습니다.” (담당자4)

③ 새로운 분야와 방식으로 문화예술 흥미 증진

장애인들이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회 속에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그들을 문화예술활동이 벌어지는 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홍애령, 2013). 따라서 방학주말 프로그램은 능력개발 훈련 위주의 교육 방식을 탈피하여 타인과의 교감을 통해 즐거움과 능력개발, 사회성 증진 등을 함께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이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많으며, 발달장애 활서비스에서도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치료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지거나 기능 향상 측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승효과를 얻기 어려웠다. 본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시설적 환경과 문화예술교육의 강사와 프로그램이라는 교육적 환경이외에 이질성과 동질성을 함께 갖고 있는 동료집단이라는 인적 환경들이 함께 조성됨으로서 상승효과를 얻고 있다. 함께 참여하는 집단에 호감을 느끼며 상대방을 무의식으로 따라하는 거울효과는 걸모습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도 투사되어 나타나는데,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즐거움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속담과 같은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음악 프로그램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같은 것을 배웠는데... 피아노는 피아노 한 대 있는 공간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레슨 끝나면 계속 혼자 하다가 검사 받고 오는 방식인데, 여기는 재미있게 다함께 하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훨씬 더 재미있어요.” (참여자5)

“아이의 입장에서는 장애가 있어서 같은 또래 아이들이 즐기는 것들을 잘 즐기지 못했는데 본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품을 즐기고 흥미가 생겨나기도 했으며 부모가 강요해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과 즐기면서 활동을 하게 되어서 흥미가 더욱 높아지는 것 같다. 집에 장난감이나 퍼즐 등이 많이 있어도 잘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가지고 놀기도 한다. 스케치북에도 색연필로 그림이나 낙서를 하면서 놀기도 한다.” (보호자1)

“다른 분야는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전통무용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분야이고 참여자들도 처음 접하면서도 활동적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점이구요...” (담당자2)

“영화나 연극분야는 지방에서는 관람도 어려운 전혀 접해볼 수 없는 분야인데, 직접 활동을 해 볼 수 있는 점이 다른 프로그램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특별한 기회를 갖는 것이라 생각한다.” (담당자5)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무료로 일 년 동안 새로운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장애인들의 경우 어떠한 효과성을 단 시간에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처음 이 사업이 의도한대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에 대해 접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담당자2)

“혼자서 무언가를 검색하고 혼자 해보려고 하는 자립심이 생겼다는 것이다. 특히 예술 분야에 대한 탐구심이나 호기심이 생겼다고나 할까? 때때로 엄마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스스로 찾아보고 지식으로 만들어서 이야기 해줄 때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없던 모습이라 큰 효과성이라 생각한다.” (참여자3)

④ 문화예술을 통한 치료적 효과

재활치료의 고전적 의미는 의학적인 치료가 강조되었지만 재활 패러다임이 사회적 모델로 변화되면서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사회에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최대한 기능을 회복시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이미정, 2010). 특히 발달장애아동에게 주어지는 발달재활서비스에서는 재활 치료를 통한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아동의 재활치료가 주목적이 아니었지만 문화예술이 갖는 치료적 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특히 언어적 특면의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됨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장애아라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를 같이하기는 하지만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사표현이나 감정표현, 언어 구사력 등이 전보다는 나아지는 것 같다. 아이들이 늦

어서 그렇지 단계적으로 발달을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다.” (보호자1)

“5세이고 언어발달이 많이 늦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연주했어요. 선생님과 계속 노래를 부르며 엄마도 옆에서 계속노래를 같이 불러주었다.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8살 짜리 아이가 한명 있었는데 언어적인 표현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아이를 보면서 좋아하고 따르고 하면서 언어적인 발달이 어느 순간 늘어있더라고요. 치료적인 효과까지 바라지 않았는데 그 아이 발달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룹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담당자3)

또한 중도장애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위축감이나 정신병리학적 문제가 집단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스스로 느낄 정도로 개선되어 치료적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저희 아이는 중도에 장애를 갖게 되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되었다. 그래서 질병의 치료와 함께 우울증 치료도 병행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으면 우울증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고, 지금 참여함으로써 많이 좋아진 것을 느낀다.” (보호자3)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말이 많아졌고 성격이 좋아졌어요, 엄마도 좋아하시고, 또 하고 싶어요.” (참여자2)

이러한 심리적 치료효과는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 참여자에게서도 나타났는데, 아이에게 미술활동이 좋았지만 자신에게도 치료의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구요, 프로그램을 단순히 참여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와서 여러 종류의 미술 활동을 함으로써 아이에게도 좋았고 저 역시도 스스로 힐링이 되기도 했어요.” (보호자1)

⑤ 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휴식 제공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부가적으로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는 주양육자에게 프로그램 진행시간 동안에 휴식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주양육자의 휴식 제공은 본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서 이미 목표한 바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에게서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이 많았다. 평소 주양육자인 어머니에게 미안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본 프로그램에 아버지와 아동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느끼고 있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빠랑 유대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이런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아내도 자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과 여유를 갖게 되었다.” (보호자1)

“우리복지관의 기획은 어머니의 양육시간을 줄이고자 하였는데, 2시간 이라도 아이들의 양육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담당자3)

지방 농촌지역에는 조손가정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전국의 조손가정은 11만9294가구로 보고되고 있으며 조부모들이 학력도 낮은데다가 평균 소득도 59만 1천원으로 삶의 질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2010년 조손가정 실태조사, 통계청). 특히 발달장애아동을 둔 조손가정에서 조부모가 발달장애 손자녀를 요육의 관점에서 돌보기에는 매우 어렵고 학교에 가지 않는 방학기간이나 주말에는 장애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가시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방학주말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

“하00군은 아빠가 멀리계시고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 방학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방학주말 프로그램을 하면서 심심하게 지내는 토요일이 줄어들고 할머니께도 도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담당자)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였는데, 장애를 갖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늘 바쁘셔서 아이들은 할 일이 없다. 무료한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보다는 함께 모여 즐거운 프로그램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담당자4)

“방학이 되면 이 친구들이 프로그램도 없고 사실 집에 가면 보호자들과 지내야 하는데 시골이어서 보호자들이 굉장히 바쁘시다. 농사하거나 어업에 종사하셔서 매우 바쁜 경우가 많다. 친구들과 같이 보호자들이 교감을 해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담당자4)

⑥ 잠재되어 있는 소질의 개발

장애인의 강점을 개발하는 교육은 장애아동의 성공적인 전환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며 직업능력과도 연관될 수 있다. 실제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배우로 크게 성공한 다운증후군 지적장애인이 있으며, 발달장애인 합창단이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반드시 직업과 연계되지는 않더라도 장애아동의 문화예술적 능력은 장애로 인해 낮아진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타인과 교감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방학주말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흥미로운 방식으로 문화예술에 접하게 되면서 갖고 있던 소질이 극대화될 수 있었다.

“의사, 가수가 꿈이라서 음악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좋았어요. 꿈을 키울 수 있는 거니까요” (참여자5)

“지금 영화반에 참여하고 있는 23살 뇌병변 친구가 문화예술사업을 하기 전에 미술수업을 했었다. 미술에 소질이 보여 올해 미술수업에 참여해보자고 했지만 싫다고 했다. 그전에 미술수업을 할 때에 매일 늦잠자고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았다. 영화반에 와보겠다고 하여 영화반 수업을 참여하는데 제일 먼저 와서 교실환기도 하고 촬영도 하고

배우도 해보고 너무 즐거워한다. 선생님도 같이 하다보니까 선생님께서도 소질도 있고 끼도 있고 즐거워한다고 하신다. 미술수업을 할 때 예는 집에서 엄마가 깨우려면 너무 힘들고 저희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너무 즐거워한다. 자기가 마음속에 이런 쪽을 하고 싶었나 봐요. 시골이다 보니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고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늘 꿈꿔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매칭이 잘되어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서 그 반에 가면 다른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변화긴 했지만 뭐라도 자기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준비물을 제가 준비할 때 그 친구가 ‘선생님 제가 뭐할까요’ 해서 미리 와서 준비하는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질을 개발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승화 시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담당자5)

■ 소결

방학주말프로그램의 기획동기에는 가족관계의 증진과 사회성 향상, 주양육 부모에 대한 휴식의 기회 제공 등이 들어있었다. 이러한 목적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본래의 가치라기보다는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가족과 사회를 인식하여 사회적 환경에 개입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한 단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사업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당연히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에게서 가족관계의 증진 효과는 표면에 나타나고 있었다.

너무나 익숙한 것이 가족관계이지만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어 가족역기능이 심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장애아동의 아버지가 주말에 장애아동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동료의식을 가진 다른 장애아동의 아버지와 교류하는 기회가 되어 서로 이해해주는 친구가 생겼다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장애라는 문제를 자신의 가족만이 가진 문제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로 타인과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집단활동은 장애아동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타인과 교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적극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문화예술활동을 함으로서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심리적 위축감이나 정신병리적 증상이 감소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도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흔히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예술분야를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접하게 됨으로서 심도 있는 예술적 접근이 가능했고 이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여 장애아동의 재능이나 소질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즐겁게 접하여 내면화되고 있다는 점이 큰 수확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주양육자의 휴식시간이 제공되는 이점과 함께 주양육자에게만 맡겨졌던 장애아동 양육과 관심을 아버지와 공유하여 부모 상호간에 이해가 증진되는 이점이 있었고, 다른 장애아동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내 자녀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부담스럽지 않게 장애아동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적용된 방법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제, 계획된 활동, 자원과 기술 등을 기본적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다(이민오·정병호, 2012). 방학주말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창의적 활동을 주제로 하지만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장애’라는 이슈를 가진 장애아동이나 형제자매, 부모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기획한 주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이지만 실천현장 기획자는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의 사회복지사라 할 것이다. 사회복지프로그램은 문제 또는 니즈(needs)를 인식하고,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유용한 자원을 확보하여 연계하고 축적된 기술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담보해나가고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휴먼서비스의 특성을 갖고 있어 그 기획 및 진행자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 사업으로 단기간 진행된 방학주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논하는 과정에서 기획과 진행

에 어떠한 특성이 참여자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향후 프로그램이 발전되고 정착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① 담당자의 평소 이용자에 대한 세심한 욕구 파악

담당자가 장애아동에게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가족관계에 평소부터 관심을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기다려왔다는 점에서 담당자의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아동의 형제자매는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많아 장애의 이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계형성을 중점으로 계획, 진행하였다.” (담당자1)

“특히 주말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상반기 ‘행복한 가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의 ‘아빠’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하반기는 ‘아빠와 아이’를 초점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했다. 이 프로젝트의 취지는 가족들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가족 안에서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며 가족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따라서 가깝지만 멀기도 한 사이인 아빠와 아이가 이 시간만큼은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며 가족을 넘어 다른 가족들과도 관계를 쌓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담당자2)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올해에 내년에는 어떤 분들과 수업을 함께 할까 생각하며 이용자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담당자4)

② 담당자와 강사의 원활한 협력 관계가 효과성 도출의 핵심

본 프로그램의 진행에서 담당자는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강사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강사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 시간을 가지며,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고, 프로그램 후에도 시간을 내어 함께 평가하고 참여자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과 변화를 충분히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담당자와 예술강사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통해 방학주말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됨을 볼 수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담당자와 강사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강사와 담당자가 맞지 않다면 수업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며 그 부정적 영향을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사전에 강사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수업 방향을 결정하고 준비물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며 이용자들 관리도 잘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관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복지관은 그런 부분에 있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자2)

이를 위해 담당자와 강사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데, 원거리에서 오는 예술강사의 경우 대면 협의시간을 갖는 것이 충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자주 의논하는 기회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을 데려다 줘야 해서 오랜 시간 나누진 못하지만 전화를 통해 이야기를 한다.” (담당자3)

“수업 전에 전화통화로 준비, 시간 등을 체크하고 수업 후에도 의사소통 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연락한다. 참여 아동에 관해 의논할 일이 있을 때에는 주중에 전화통화를 좀 길게 하여 의논을 하는 편이다.” (담당자5)

더 적극성이 있는 담당자의 경우 프로그램 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여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저는 강사님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업 전 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저녁을 함께 먹는다면.. 전화, 문자, 카톡으로 수시로 준비물이나 수업에 관한 의견 나누고 있습니다. 수업 후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5)

특히 예술강사에 대해 좀 더 존중하고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맞춰주는 노력도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것 같다. 이전의 프로그램의 담당자와 예술강사의 관계가 나빠져 프로그램 자체가 어려워졌던 사례에서는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담당자의 노력으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마칠 수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맡기 전에 다른 분이 맡으셨어요. 문화예술사업으로 넘어오기 그전 과정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했는데 이사업을 처음 맡았을 때 무용수업에 들어갔는데 강사선생님하고 담당자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강사선생님이 화내면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 상황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분이랑 같이 수업을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그분이 성격이 강하셔서 다른 기관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괜찮은 부분에선 괜찮았지만 대립이 있는 부분에서는 대립이 있었다. 예술하시는 분이라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다. 사회복지사분들이 대부분 맡고 계시니까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 조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사님도 잘 다루면 잘 지내고 수업도 재미있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담당자2)

담당자가 본 프로그램에서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은 송영서비스, 강사 서포터, 강사와의 의사 통로,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 중 도입부와 마무리의 개입, 참여자들의 의견 전달자, 프로그램 보조진행자, 수업 기자재 준비, 강사와 부모들 간의 의견 조율자, 평가의 진행자 등의 역할이어서 그 역할들이 본 프로그램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적절한 참여자 모집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연계

담당자가 몇몇 클라이언트 가정을 통해 인지하고 있던 욕구를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방학주말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후 집단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기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때, 장애아동의 아버지와 장애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아버지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택하고 있다. 장애아동이나 어머니와 접촉이 많은 발달재활치료사를 통해 대상자 선택에서 자문을 구하는 한편, 주변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홍보하기 위해 특수교육 지원청을 연계하였다. 진행과정에서 중도탈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자 선정에서부터 참여의지를 고려하였고,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고른 프로그램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우선 참여자가 아빠와 아이였기 때문에 참여자 모집에 주력했어요. 우리 취지에 맞는 참여자를 만나기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이야기 듣는 치료사들에게 직접 자문을 구했고 특수교육지원청과 연계해 학교에 공문을 보내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는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할 의지가 1순위였고 무료프로그램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2순위로 선정조건을 두었어요.” (담당자5)

방학주말 프로그램이나 활동가 파견사업이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시작하게 되어 참여자의 모집이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주변 학교의 담당교사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적절한 인원을 참여시킬 수 있었다.

담당자의 참여자 모집의 적극성과 평상시의 네트워크 형성이 참여자 모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방학 동안에 저희가 캠프나 계절 학기를 운영했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었다. 중 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하고 싶었는데 조금 늦게 시작했었다. 이미 남고에서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시작했었다. 여고학생들과 사전에 저희 영화 강사님과 상의를 했을 때 20명

정도 여고 남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으로 기획을 하셨다. 그래서 여고 학생들이 10명에서 11명 정도 되고 가족이나 형제, 부모 등도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같이 동참을 했다. 방학 동안에 신청을 받았더니 원하는 인원이 더 많았다. 그 중에서 연령을 고려해서 젊은 층의 학생들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다.” (담당자4)

④ 강사선정과 매칭

방학주말프로그램의 강사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매칭해서 파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관에서 신청한 프로그램의 강사가 적절히 매칭되지 못하여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방이다보니 파견 나올 강사가 없어 부득이 해당 프로그램을 포기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본 복지관은 창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언제나 강사 수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은 선정되었으나 강사의 부재로 본의 아니게 분야변경을 두 번이나 하게 되었네요.. 3월에 담당자는 늘 조마조마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우선 창원 인근지역에 강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듯합니다. 올해도 부산과 대구지역에서 1차 강사 파견이 결정되었는데 1차 선정된 강사는 4개 분야 중 한 분 오셨습니다.”(담당자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자가 평소의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거나 미리 강사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컨택하는 등 갖은 노력을 동원하여 적절한 강사를 섭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강사풀에서 지방 복지시설에 파견나갈 각 분야의 문화예술강사가 충분하여 원하는 참여자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장에서의 매칭이 원활하지 않아 담당자가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강사가 결정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역량있는 강사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방의 열악한 복지관에서 근무하다보니 강사분들을 소개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가 있다. 강사분들 나름 역량도 좋으시지만 다양하게 강사를 섭외하기가 어렵다.” (담당자5)

⑤ 강사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 필요

본 프로그램의 강사 기준에 장애에 관한 경험을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강사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수준과 교수방법을 담당자가 관리할 필요가 생긴다. 담당자가 이러한 고려를 하여 섭외 시부터 고려한 경우에 진행과정 중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교육으로 나아가기 용이하다.

“강사 컨택 과정에서 우리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임을 밝히고 강사에게 장애인 경험이 있는 지에 대해 여쭙었다. 또한 컨택 과정에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사로 컨택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수업진행을 직접보고 이야기 나누며 장애인에 대한 경험있음을 확신했다.” (담당자5)

하지만 신규강사가 모집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진행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신규강사님이 네 분 중에 두 분이 오시는데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신규강사님들도 많이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오시는 분들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동특성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하고 강사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서 안 바쁘시면 잠깐이야기 하고 보조강사님과도 같이 이야기 나누고 수다가 될지언정 이야기를 나누고 가면 서로 연락하기도 편하고 이런 상

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담당자4)

예술강사가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상의할 지원시스템도 갖추어져 있는 않기 때문에 예술강사들이 SNS등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해결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다. 여기에서 공유되는 정보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경험에 의한 정보들로서 개별적 특성이 다른 장애아동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맞닥뜨리는 장애특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기관 문화예술지원사업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전에 장애라는 복합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 심리적, 신체적, 직업적, 사회적 재활에 대한 관점 등을 강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될 필요가 있다.

“장애아동이 기분이 좋지 않아 보조강사선생님을 때리는데 이와 같은 긴급 상황 시에 예술강사님의 대처능력이 떨어져요. 넓은 곳에서 수업할 때는 괜찮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환경이 변화되었을 때 행동반경이 증가되고,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행동을 할 때에 대처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장애관련 강사님이 아니라 국악, 예술 분야에 관련된 사람이 와서 수업 진행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없는 수업이 진행될 때도 있어요. 장애의 이해정도를 향상하기 위해 연수시간도 강사님을 배려한 시간에 책정 되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면서 강사님이 참여자 개개인의 장애의 특성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담당자2)

“강사님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개인차가 있습니다. 차분하게 아이들을 잘 이끄시는 분도 계시고 열정은 가득하나 수업 진행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분들도 계십니다. 강사 연수 때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분 강의가 있나요? 없다면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담당자1)

⑥ 환경과 기자재 구비

방학주말프로그램에서 복지관의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공간 사용이 가능했다. 기자재 사용에서도 겹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웠다. 다만 구입할 수 있는 기자재의 건당 구입비가 10만원을 제한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에 필요한 기자재가 거의 10만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토요일은 프로그램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강당이용이 용이했고 기자재 또한 적절했다. 강사가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필요한 부분은 보충하고자 노력했고 참여자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담당자1)

“또한 음악수업도 10만원이라는 한계선 때문에 사용하고 싶어도 10만원이 넘어서 못하는 악기들이 있더라고요. 악기가 생각보다 비싼편이지요. 포기하고 저렴한 악기들 중에서 구입해서 수업을 하지만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담당자3)

“교구가 10만원 이상 이면 구입하지 못하는데 악기가 거의 10만원이 넘는다. 수업 시간 내에 쓰는 악기가 고가인 것도 있다. 고가여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담당자5)

■ 소결

방학주말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 기관차원, 담당자 차원의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예술 강사의 매칭에 있어서 지방의 강사 부족이나 다양한 강사 섭외가 어려운 점에서 해결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의 예술가들이 강사로 영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예술강사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를 진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

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프로그램 진행에서 일어나는 돌발적 상황을 대처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예술강사 간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방학주말 프로그램의 수행기관은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이지만 강사 매칭과 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의 장애인 관련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예술강사의 장애인해에 대한 고충을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기관차원의 준비는 교육환경을 편안하고 사용하기 충분하게 조성하는 것과 기가재 사용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기관장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담당자가 아닌 사회복지사들이 보조 인력으로 출근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주말 프로그램이지만 기관의 관심 속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담당자가 가질 수 있었고, 보조 인력이 많으므로 돌발적인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났다. 또한 개별적인 특성에 맞출 수 있어 교육의 효과성이 높아지는 결과들이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방학주말 프로그램에서 담당자의 기획력과 운영 노하우가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담당자가 평소 이용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기획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오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은 강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별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적응도나 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관찰과 사례관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담당자의 부모 상담은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기관에 대한 관심을 높여 향후 기관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2) 활동가 파견사업의 효과성

(1) 참여자의 효과성

① 예술가와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 하는 즐거움

문화예술을 통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장애인들만 동료로 만나는 재활시설의 장애인들이 장애인 이외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동하는 경험은 매우 적다. 장애인복지의 목적이 사회통합이고 정상화라면 장애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소통의 기회를 갖고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고립이나 소외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활동가파견사업의 본래 취지가 예술가와 문화예술이라는 환경에서 함께 향유하는 즐거움을 갖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활동가파견사업의 효과성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졌다. 실제로 이러한 콘셉트를 유지하기 위하여 활동가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짜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지고자 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만남은 서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했으며, 편안한 가운데 점차 가까워지고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이 작은 성취의 기쁨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면서 활동가도 함께 즐거워지는 상호작용, 즉 공감의 즐거움이 창조되고 있었다.

“처음에 설정한 목표는 그냥 단순하게 장애인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장애인들이 좋아하고 반응이 오는 것을 보고 저 역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장애인들과 가방을 많이 만들었는데 만들어진 가방에 추가로 장식을 하거나 가방 만들기를 완성하면서 장애인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서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활동가5)

활동가파견사업의 부제가 예술가 친구사귀기인 만큼 활동가 중에는 장애인과 빨리 친해지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은 아주 효과적이면서도 예

술적 감각을 갖는데도 효과적이었다. 활동가가 장애인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서로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반면 활동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때 친밀감의 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단 장애인들과 빨리 친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우선 빨리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장애인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색을 가지고 첫 시간에는 네일 아트를 하었어요. 색을 통해서 친해지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돼요. 친해지기 위해서 특별하게 장애인이라고 해서 새로운 방법이나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누구와 같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친해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장애인들 역시 친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요..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여 친해지는 방법이나 절차를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면 상대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가져가서 시작하고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네일아트를 좋아하셔서 네일아트를 이용해 친해지려고 한 것이에요.” (활동가6)

② 문화예술 활동으로 흥미 탐색

예술가가 장애인들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어떠한 효과성을 담보해야 하는지 고려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편안하게 다가서면서 활동가와 함께 하는 시간은 억지로 참여하는 시간이 아닌 장애인들이 흥미로운 시간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연극이라는 분야가 배우가 극을 만들어 무대에 서는 것으로 완성되는 분야이지만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목표를 정하는 것은 본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연극이라는 장르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흥미로운 활동을 적용하여 문화예술이라 이슈로 활동가와 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보다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가시적인 효과를 활동가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용자와 이런 것 하면 재미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서 이용자들의 흥미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가능한 어려워 보이는 것은 제외하고 쉬우면서 흥미로운 것들을 찾아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하기 보다는 이용자들이 흥미를 갖고 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였는데...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전에는 몰랐던 감각이나 흥미 등을 발견하는 것 역시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활동가1)

“그리고 어려웠던 점은 이용자와 6개월 이상 장기간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켜볼 수 없어서 구체적인 효과성을 찾기란 어려웠던 것 같다. 그래서 이후에 프로그램이 장기화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효과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활동가1)

③ 사립과 소통

교육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기술을 전수할 때에는 일방통행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활동가들은 본 프로그램이 예술과 소통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목공예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실제 목표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는 과정이 중심이 되었고, ‘우리’ 라는 동질감과 공동체의식, 심적 교류의 상태를 서로 느끼게 됨을 발견한다. 이에 대해 활동가는 ‘애정’이라는 표현을 써 형성된 친밀감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특별하게 목표를 세웠다가보다는 교육제목을 “관계를 깨우는 손작업” 이라고 정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의 목표가 추상적인데 일상적인 재료 외에 독특한 재료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사물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 라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작업을 하면서 각기 수업마다는 정확한 목표는 있었으나 오히려 그 목표보다는

교육을 다 하고나서 보니 친구들과 애정이 생긴 것이 가장 큰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활동가3)

이러한 친밀감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선입견을 걷어내고 장애인과 활동가 자신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사람으로 인정할 때 형성되기 시작할 수 있다. 활동가에 따라서는 선입견의 벽이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정해져있는 시간을 자신의 경험과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장애라는 개념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입견이 깨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다. 선입견이라는 것은 마치 일방통행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방통행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행정체계나 시스템은 일방통행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서로 함께 살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며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활동가2)

④ 감각조절 능력 또는 사회성 향상

장애인들이 흥미를 느끼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어떤 참여자는 처음보다 다른사람을 옆두에 두고 행동할 줄 아는 사회성 측면의 향상을 보였고, 또 다른 참여자의 경우에는 무대나 발표 기회를 경험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가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 집단에서 참여자들 중 절반 정도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발견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차가 존재한다.

“아마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각이나 사회성 등이 개발된 것 같다. 어느 이용자는 평소에는 말도 많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남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람들 앞

에 섰을 때는 아주 쑥스러워하며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경우는 감각이 발전했다고 하기 보다는 남을 의식하고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것을 배운 것 같다. 그리고 무대나 발표를 통해 초반에는 적극성이 없었던 이용자가 적극성을 보이고 무엇인가를 하려고하는 동기를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고 변화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의지를 갖는 것조차도 어려운 이용자들이 많지만 그러한 의지를 보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여 이용자의 절반 정도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던 것 같다.” (활동가1)

또는 짧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빠른 평가라는 의견들이 진술되었다. 다만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과 한 번 시작한 것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을 효과라고 보기도 하였다.

“발달장애인 특성상 작업기능도 많이 떨어져서 실 작업을 넘어갔을 때나 매듭을 묶는 것들,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는 순서 등을 어려워했는데,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강사에게 의존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강사로서 포기하기 않고, 대신 해주지 않고, 어려운 작업이더라도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작업기능을 향상시키는 훈련일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르쳐 주고 싶었다. 그냥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본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노력해 보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다...반복해서 어려운 것을 해냄으로 작업능력의 향상과 의지하는 부분이 무너지게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묶는 방법을 계속했더니, 빠리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하게 되었다.” (활동가5)

⑤ 배려심의 향상

활동가와 편안한 사귀에서 서로 간에 배려나 협동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

며, 이러한 역량이 프로그램 시간 이외의 시간에서 지속이 가능할 만큼 함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단 기관 선생님들 말로는 방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고 하신다. 거주 이용자들 간에 다툼도 적어지고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많이 고마워하신다. 강사로써 직접적으로 느낀 것은 이용자들이 바느질하면서 좋아하시거나 만족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변화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활동가5)

“일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이용자들이 서로 배려하는 것이 보인다고 하시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설명하신다. 전에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도 본인 것만 그렸는데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는 서로 같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고 정서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케치하고 다른 사람은 색을 칠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활동가6)

Ⅰ 소결

기획 당시부터 정해진 목표 없이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만남을 통해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마련된 활동가 파견사업은 활동가들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만남과 소통을 경험하는 효과가 있었다. 참여 장애인들이 활동가와 몇 회기 이상 문화예술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만남을 갖고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활동가들은 장애인들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활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속되는 장애인들은 조금씩 표정과 의사표현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을 활동가에게 보여주었고, 활동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해나가게 되었다. 평소 생활이나 작업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갈등상황이 많이 줄어들고 협력하는 모습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아 문화예술이라는 즐거운 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그것을 함께 하는 동료의식이 생기기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2)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적용된 방법들

① 장애인과 만나기 위한 준비

연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의 경우 처음 할 때에 장애인을 잘 몰라 당황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공예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을 찾아 교육의 노하우를 배우고 조언을 청취하여 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응용하여 프로그램을 적절히 진행할 수 있었다. 친인척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자연스럽게 장애인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적응이 빠른 것을 볼 수 있었다.

“작년 참여시 인천 주간보호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 있는데 목공위주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황하였다. 장애인과 손작업하는 여러 곳을 찾아보고, 방문하고 특히 양평의 슈타이너 학교에 가서 수공예 선생님을 만나 장애인친구들과 작업 시 어떠한 재료, 어떤 방식, 등을 물어보고 조언을 받고 그곳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배워 보기도 하는 방법으로 사전이해의 노력을 하였다. 행사 때 슈타이너 학생들을 만났는데 1학년부터 고3까지의 학령기의 친구들이었는데 몸이 굳기 전 친구들이어서, 이곳 교육 대상 친구들과 연령대가 달랐다. 작년의 친구들은 20대 이상이여서 어려웠으나 배웠던 부분을 혼합하면서 같이하게 되었다.” (활동가4)

“개인적으로 친척 중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 있다. 고모부께서 장애가 있으신데 그분을 통해서 장애인을 접했었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어떠한 전시회를 보게 되었는데 호텔 아트 전시회 중에서도 비장애 작가들 보다도 장애 작가들의 전시물이 더욱 신선하기도 하였다. 우연히 장애인 작가 작품을 접하게 되었지만 작품이 우수한 것을 보고 충분히 나 역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장애인 예술 분야도 가능성이 많은 분야라고 생각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활동가1)

활동가들이 장애에 대해 특별한 긴장감 없이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써 예술을 편안히 함께 한다는 장점도 있었는데, 장애인과 활동가가 서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친구가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장애인들을 알거나 특성을 배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거나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는 교육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며 그냥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장애인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려는 마음으로 방문하였다. 따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술을 가르쳐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대신에 다양한 바느질 소재나 재료들을 장애인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제가하는 작업을 같이 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왔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자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부를 하고자하는 마음은 없었다.

장애 자체에 대한 걱정은 없었으며 단지 장애가 중하신 분들이 바느질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은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걱정도 사라지게 되었다.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며 커다란 어려움은 전혀 없었다. 다른 강사들은 수업 환경이나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해서 약간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우리는 수업 장소도 방으로 되어있어서 그다지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의자나 책상을 맞추는 것과 같은 조치는 하지 않았으며 그냥 자연스럽게 바느질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활동가5)

② 자유로운 수업방식에서 오는 자유로운 소통

활동가과전사업은 기획 시부터 지침이나 목표의 제시가 없이 같은 공간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활동가의 자유로운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이 가능하며 특별한 보고사항도 없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단편 기획으로 진행되는데 반해 자유로움 속에 활동가들이 창의적으로 장애인과 문화예술을 공유하라는 취지의 기획은 본 프로그램이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수업과 관련하여 기관 담당자들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던 것 같다. 본 프로그램의 특성 상 저희 강사들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우리가 설정하고 구성하였다. 소통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기는 우선 개방적이고 강사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진행할 수가 있었다.”

“기관에서는 강사들에게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서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성할 수가 있었다.”

③ 타인과 협력하는 활동가의 마음가짐

본 프로그램은 장애인들과 가식 없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활동으로 자신의 방식을 따르도록 상대에게 강요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예술가의 특성 상 협력이나 공조의 자세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의 시간에 따라 예술가가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예술가에게 배려심이나 평정심, 기다리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을 예술가 스스로 알게 되었다.

“평정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른 강사들은 기관 담당자분들이 같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으나 저희는 오히려 기관담당자들이 함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은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타인과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본 프로그램을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평정심 등을 익힐 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타인과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예술가로써의 평정심, 차분함 등이 필요할 것 같다. 예술하는 분들 중에 잘 모르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활동가1)

“강사 분들은 언제나 인내심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되며 본질이 오도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잘 하려고 하고 뭔가를 잘 만들려고 하면 무리가 되며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다.” (활동가2)

활동가는 장애로 인해 일어나는 상황변화에 대처하거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하는 활동가의 경우에 자신이 계획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난감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상대를 바꾸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방식을 현장에 맞게 적응해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난감한 부분이 생길 때 해결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도하고, 내가 처음 계획했던 작업방식을 바꾸기도 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대상자의 수준, 기분,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문화 예술프로그램 활동가는 자신만의 계획에 짜여진 프로그램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많은 준비를 해왔을 때 수업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아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때는 나만의 수업 방식보다는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과 열린 방법으로 적용 해 보는 능력과 역량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④ 참여자에 대한 개별화 된 세심한 관찰과 관심

동일한 장애유형의 장애인으로 꾸러진 집단이라 할지라도 장애특성은 개인별로 그 양상과 수준이 너무나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이나 전환교육에서는 개별화된 계획을 중요시하고 있다. 동일한 활동가가 진행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지만 각자가 얻게 되는 효과는 각기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줄 필요가 있었다.

“이용자를 관찰하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세심한 관찰력으로 이용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와 할 수 없는 범위를 구분하여 할 수 있는 과업을 주는 세심한 관찰력이 필요하다. 이용자들이 너무 쉬운 것을 하면 금방 싫증을 내며 너무 어려운 과업을 주면 그냥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 중간 영역을 잘 관찰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강사 역시 그 중간 포인트를 언제나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래야 수업이 서로 재미있고 발전이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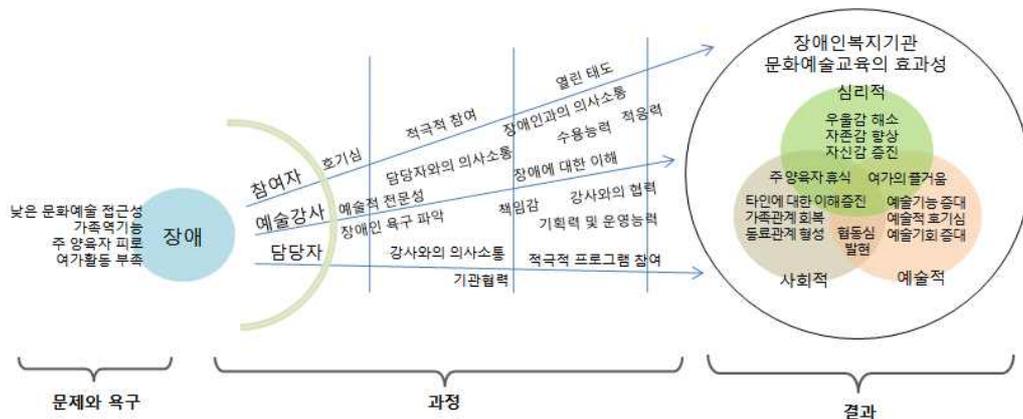
■ 소결

활동가 파견사업은 기존의 교육방식을 완전히 탈피한 것으로 활동가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술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문화예술을 사용하는 관계기술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활동가들이 어떠한 접근들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았을 때, 활동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즉, 장애인을 잘 모르니 장애인에 대해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가 자신의 활동방식을 고민하고 찾아나가는 활동가도 있었고, 직접 유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경험을 조사하여 자신의 계획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활동가는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관해 특별한 부담감 없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불편할 것은 없으며 좀 더 기다리고 맞춰가면 될 것이라는 편안함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다. 정해진 틀이 없었던 만큼 활동가의 준비도 정해진 것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자신이 해나갈 활동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진행해나간 활동가를 통해 장애인들이 변화되고 활동가 자신도 장애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어떤 활동가는 철학적 사고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자신이 가진 편견과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직업적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5. 질적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방학주말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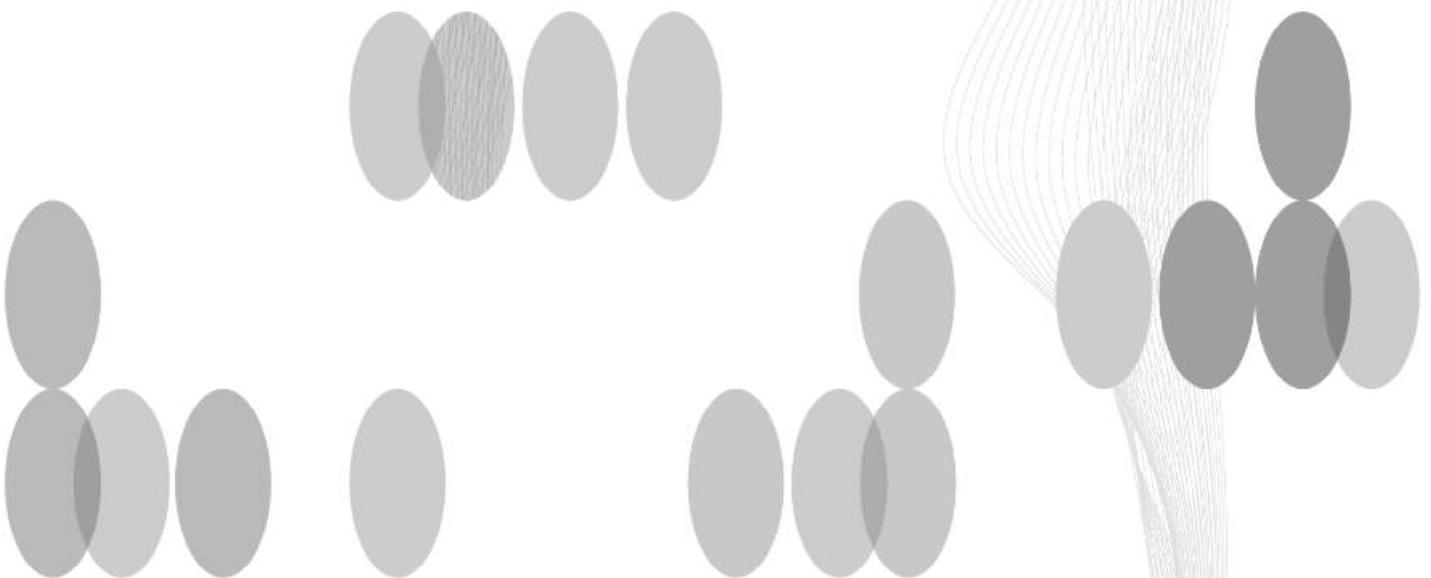


[그림3-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사업 효과성 통합모형

방학주말프로그램의 성과는 기획동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관계의 증진과 사회성 향상, 주양육 부모에 대한 휴식의 기회 제공의 효과가 나타났고, 향후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가족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가족의 역량이 증대된 점, 장애부모 동료집단의 형성으로 서비스 기관이 아니더라도 서로 돕고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이웃이 생긴 점, 집단활동을 통해 장애아동의 우울감이 감소했고, 자신을 즐겁게 표현함으로써 언어적 표현능력이 향상되고, 적극성을 갖게 된 점,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호기심 증가와 인터넷 등으로 혼자 탐색하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점, 평소 접하지 못했던 전문적인 악기나 기구재를 접할 기회를 갖게 되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된 점, 자신의 재능이나 끼를 발견하고 향후 어떤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지 알 수 있게 된 점, 가족 서로 간에 삶을 좀 더 이해하게 된 점 등이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활동가 파견사업은 활동가들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만남과 소통을 경험하는 효과가 있었다. 참여 장애인과 활동가 간에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활동가들이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가 증대되며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 서로 같은 성취감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점 등에서 장애인과 예술가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남을 가지고 친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먼저 장애인 분야에서 문화예술교육사업 중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이 갖는 의의 및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이 추구하는 효과성이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이란 타인과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며, 장애 극복 의지를 고양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 의의가 있다. 또한 문화예술활동은 장애인의 장애로 인해 결여되었던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길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 문화예술을 모티브로 한 물리적 대인적 환경의 형성은 장애아동을 비롯한 참여자에게 내면적으로 바람직한 적응상태로 나아가도록 지원하며 장애수용능력을 높이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부심을 갖게 됨으로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효과를 갖는다. 또한 가족과 함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장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가족이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문화예술은 창의적인 활동이며 옹고 그림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는 인격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분위기는 사람을 사귀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이제 문화예술활동은 특별한 계층이 향유하는 문화가 아닌 국민 모두가 일정 수준의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기본법 등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성이나 차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복지법에도 이러한 권리들이 명시되어 있다.

심층면접 및 FGI를 통한 질적연구에서는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고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했거나 사용되었던 방법들

은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학주말프로그램의 기획동기에는 가족관계의 증진과 사회성 향상, 주양육 부모에 대한 휴식의 기회 제공 등이 들어있었다. 이러한 목적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본래의 가치라기보다는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으로서 가족과 사회를 인식하여 사회적 환경에 개입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보다 나은 삶으로 한 단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초점이 있는 사업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당연히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에게서 가족관계의 증진 효과는 표면에 나타나고 있었다.

너무나 익숙한 것이 가족관계이지만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있어 가족역기능이 심화되고 고착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장애아동의 아버지가 주말에 장애아동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동료의식을 가진 다른 장애아동의 아버지와 교류하는 기회가 되어 서로 이해해주는 친구가 생겼다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장애라는 문제를 자신의 가족만이 가진 문제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로 타인과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집단활동은 장애아동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타인과 교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적극성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문화예술활동을 함으로써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고, 심리적 위축감이나 정신병리적 증상이 감소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도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흔히 접하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예술분야를 해당 분야 전문가를 통해 접하게 됨으로써 심도 있는 예술적 접근이 가능했고 이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하여 장애아동의 재능이나 소질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즐겁게 접하여 내면화되고 있다는 점이 큰 수확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주양육자의 휴식시간이 제공되는 이점과 함께 주양육자에게만 맡겨졌던 장애아동 양육과 관심을 아버지와 공유하여 부모 상호간에 이해가 증진되는 이점이 있었고, 다른 장애아동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내 자녀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부담스럽지 않게 장애아동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방학주말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 기관차원, 담당자 차원의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었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예술 강사의 매칭에 있어서 지방의 강사 부족이나 다양한 강사 섭외가 어려운 점에서 해결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의 예술가들이 강사로 영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예술강사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를 진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프로그램 진행에서 일어나는 돌발적 상황을 대처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장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예술강사 간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방학주말 프로그램의 수행기관은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이지만 강사 매칭과 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의 장애관련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예술강사의 장애이해에 대한 고충을 해소해나가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기관차원의 준비는 교육환경을 편안하고 사용하기 충분하게 조성하는 것과 기가제 사용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기관장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담당자가 아닌 사회복지사들이 보조인력으로 출근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주말 프로그램이지만 기관의 관심 속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담당자가 가질 수 있었고, 보조인력이 많으므로 돌발적인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뛰어났다. 또한 개별적인 특성에 맞출 수 있어 교육의 효과성이 높아지는 결과들이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방학주말 프로그램에서 담당자의 기획력과 운영 노하우가 효과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담당자가 평소 이용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기획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오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은 강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별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적응도나 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관찰과 사례관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담당자의 부모 상담은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기관에 대한 관심을 높여 향후 기관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적극적인 참여자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기획당시부터 정해진 목표 없이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만남을 통해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하도록 마련된 활동가 파견사업은 활동가들의 자연스러운 진행을 통해 인간과 인간의 만남과 소통을 경험하는 효과가 있었다. 참여 장애인들이 활동가와 몇 회기 이상 문화예술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만남을 갖고 함께 활동하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활동가들은 장애인들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활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속되는 장애인들은 조금씩 표정과 의사표현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을 활동가에게 보여주었고, 활동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해나가게 되었다. 평소 생활이나 작업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갈등상황이 많이 줄어들고 협력하는 모습이 생겨나는 것으로 보아 문화예술이라는 즐거운 활동을 통한 성취감과 그것을 함께 하는 동료의식이 생기기도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활동가파견사업은 기존의 교육방식을 완전히 탈피한 것으로 활동가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술보다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문화예술을 사용하는 관계기술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활동가들이 어떠한 접근들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았을 때, 활동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즉, 장애인을 잘 모르니 장애인에 대해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가 자신의 활동방식을 고민하고 찾아나가는 활동가도 있었고, 직접 유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경험을 조사하여 자신의 계획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또 어떤 활동가는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관해 특별한 부담감 없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불편할 것은 없으며 좀 더 기다리고 맞춰가면 될 것이라는 편안함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다. 정해진 틀이 없었던 만큼 활동가의 준비도 정해진 것은 없었지만 나름대로 자신이 해나갈 활동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진행해나간 활동가를 통해 장애인들이 변화되고 활동가 자신도 장애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어떤 활동가는 철학적 사고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자신이 가진 편견과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 깊이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직업적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의 개선점과 향후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엘리트 문화예술보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초점을 둔 문화예술로 정착하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증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이 기능 중심에서 관계와 상호작용 중심으로 주제를 옮길 때 그 효과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보여 주고 있다. 정형화된 교실에서 짜여진 체계에 따라 성취도를 염두에 두며 문화예술을 교육하던 방식은 문화예술이 갖는 본연의 즐거움을 앗아가지만 이러한 형식에서 탈피한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에서는 본연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기쁨으로 내적인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한 방식은 장애인과 참여자를 자신 있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서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즈음에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기뻐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고 있고 타인에게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가며 배려할 줄 아는 능력이 내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방식은 활동가의 예술적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며, 장애인에게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느끼게 되는 불편함을 소거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은 보다 편안하게 접근되어야 하며 삶에 스며들도록 마련되어 나가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기회는 증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예술가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도 모두에게 예술을 잘 접하도록 할 수는 없다. 교육의 효과는 교육의 대상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졌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때에 담보될 수 있다. 인터뷰에 응했던 방학주말 프로그램의 예술 강사 중에는 4년 이상 예술치료 경력을 갖고 있는 강사가 있었는데,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만족에 대한 반응이 매우 높았다. 장애인을 처음 접해 본 강사의 경우 강사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도 있었고,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장애인과의 적응에 보내기도 하였다.

방학주말 프로그램과 활동가 파견사업의 매칭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강사들이 프로그램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으며, 이때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일정

수준 이상은 할 수 있는 강사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관련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문의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자재 지원에 있어서 장르에 따른 탄력성 부여가 필요하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장르가 6개 분야 이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어서 다양한 장르를 고려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이 예산에 맞추어 적정선에서 기자재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지만 10만원으로 한정된 기자재 구입비는 적당한 기자재를 찾지 못해 이미 복지관에 있는 것을 한 번 구입하게 된다는지, 꼭 필요하지만 포기해야한다는지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기관도 있었다. 장르나 교육방법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을 두어 창의적인 활동을 지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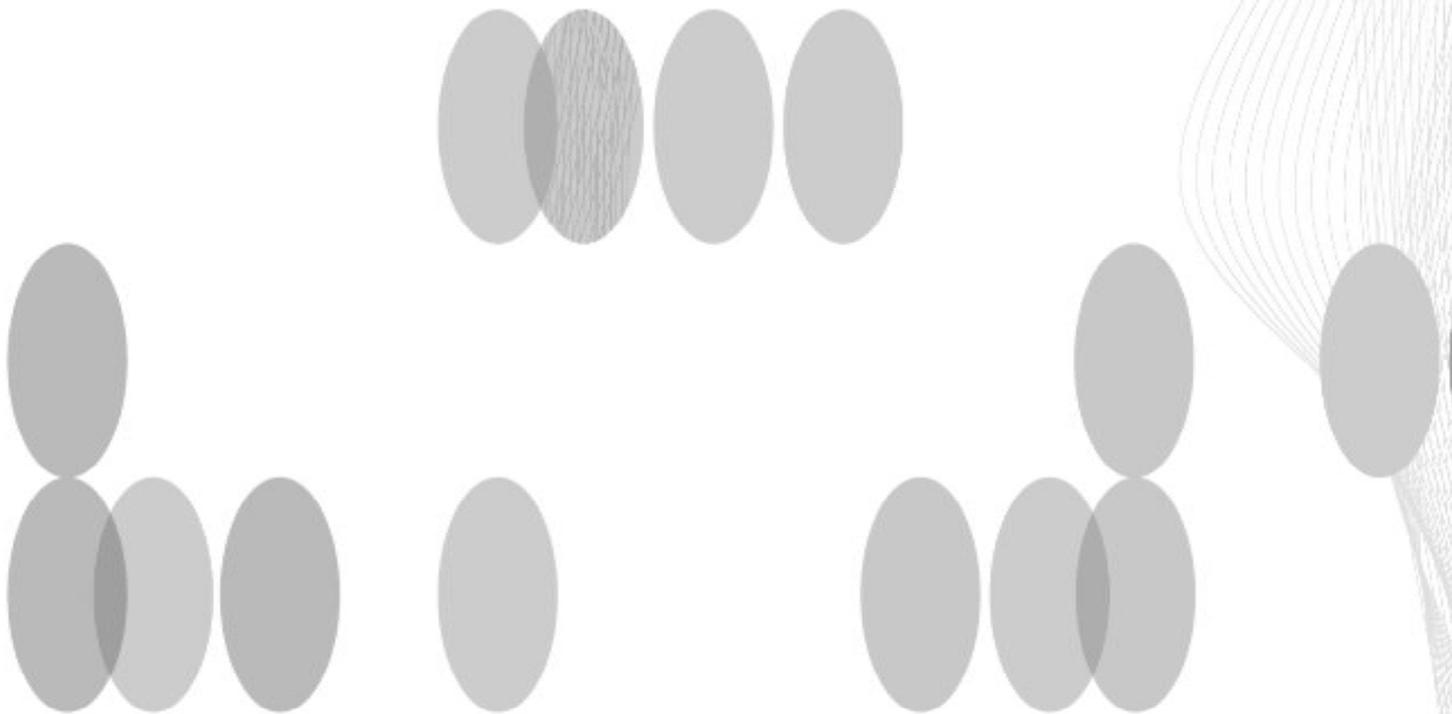
넷째, 지방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강사 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에는 예술강사나 활동가들이 충분하고 프로그램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도 적정하여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마음껏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방의 상황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정한 예술분야에만 한정하지 말고 그 지방의 특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의 대학들과 연계한 문화예술강사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문화예술을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기획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방학주말프로그램과 활동가파견사업은 기존의 평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에서 파생된 기획사업이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알려진 효과 이외에 장애아동의 가족과 형제자매 들에게 가족기능강화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또한 활동가 파견사업은 예술가 친구사귀기라는 파격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예술가와 장애인을 그 장으로 들여보내는 단순한 작업을 통해 도출되는 효과를 보고자 한 창의적인 시도이다. 고전적인 한 가지 시스템으로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적응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

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할 수 없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끊임없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될 때 그 사회를 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여섯째, 장애인의 예술적 잠재력을 수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시대적 패러다임에 따라 장애인의 삶은 시혜적 삶에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 문화예술의 가치가 즐거움과 소통, 문화적인 삶에 있지만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고 특별히 많은 기쁨을 문화예술을 통해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창조적이고 즐거운 활동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익과 연계된다면 문화예술이 장애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취를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합창단이 있고, 발달장애인 영화배우가 있으며, 오케스트라도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평생 학습해나가는 문화예술활동이 되고, 이러한 활동이 사회에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이 디자인으로 문구용품에 새겨져 팔려나가고 목공예품이 팔려나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기획사업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으로 공모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V. 참고문헌



- 강소정(2012). 무용치료를 통한 생활시설장애인의 정서표현 및 사회성 변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대구.
- 권기덕(1999). 신체상에 관한 연구(II): 신체, 자아,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3).
- 김미영(2011).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기초한 삶의 질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8.
- 김미영, 이인정(2012). 프로그램 환경과 사회적 지지가 정신장애인의 희망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 김유환, 추근도(2008). 장애인 신체상에 대한 탐색. 한국체육철학회지, 16(2).
- 김종인(2013). 재활학개론.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김종인(2008).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활동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홍길(2010). 유명 장애 연예인 성공 스토리가 장애인 인식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서울.
- 단양현미(2010).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분석연구.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변은경, 전성숙(2011).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관련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0(2).
- 성치상, 오봉욱(2011). 발달장애인 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사회복지리뷰, 16.
- 양원모(2006). 장애-비장애 통합문화예술교육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위원회.
- 양혜원(2012).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
- 윤덕경(2011).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에 대한 실제와 그 가능성. 한국무용연구, 29(3).
- 이기성(2010). 예술강사 핵심역량 모델구축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위원회.
- 전병태(2007).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
- 전병태(2010). 장애인 예술인 창작 활동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

- 정명숙, 강석임(2010). 시설거주 정신장애인의 삶에 대한 만족에 영향으로 미치는 요인들.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 정현수(2013). 2013문화예술교육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분석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문예진흥 40년 지원정책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 예술치유 활성화 모델개발과 사업타당성 연구.
- 홍애령(2013). 장애를 넘어 춤추는 사람들 춤추는 장애인 개념과 실제, 가능성 탐색. 장애의 재해석. 한국장애인재단.
- Catterall, J. (1998). Involvement in the arts and success in secondary school. Washington, D.C.: Americans for the Arts monograph series, no. 9.
- Christine Y., Mason, Kathlyn M. Steedly, & Mary S. Thormann. (2002). The Impact of Arts Integration: Voice, Choice and Access. Boston, MA: Cole.
- Creswell, J. W. (200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조홍식 등 역). 서울: 학지사.
- Deasy, R. (2002). Critical links: Learning in the arts and student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D.C.: Arts Education Partnership.
- Denzin, N.K. (1989).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Eisner, E. (2002). The arts and the creation of min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uppers, p.(2011). Disability culture and community performance: Find a strange and twisted shape. Houndmills and New York: Palgrave.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ru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Spradley, J.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Y: Holt, Rinehart, & Winston.
- Strauss, A. L., & Corbin, J. M.(2003). 근거이론의 단계(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 Winner, E., & Hetland, L. (2000). The arts and academic achievement: What the evidence shows, Executive summary. The Journal of Aesthetic Education, 34, 3.4.

참고사이트

법제처. <http://www.law.go.kr/main.html>

장애인복지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기본법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policy/policy_bd_vw.jsp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문.